



주간 중국 창업

제 244 호 (2021. 8. 25)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NEWS

- ▶ 소고우 인수로 검색 역량 강화하는 텐센트 (봉황과기凤凰科技, 2021.8.18)
- ▶ 바이두 월드컨퍼런스에 펼쳐진 바이두가 꿈꾸는 미래 사회 (지동서智东西, 2021.8.18)
- ▶ 상하이에서 디지털 인민페 사용체험 (텡쉰왕腾讯网, 2021.8.14)
- ▶ '공동 풍요' 가치를 들고 텐센트 또 500 억 기증 (36kr, 2021.8.19)

ISSUE 및 시장동향

- ▶ '탕핑족' 중국 젊은이들이 일으킨 '고독 경제' — 이오왕(亿欧网) 제공
- ▶ 이것이 사업이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의 몰락은 불가피한 것이었을까? — 36kr 제공
- ▶ 중국 탄소시장 운영 현황 — 경제일보(经济日报)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111) 중국 최고 양자과학자 판지엔웨이가 정리한 중국의 신양자혁명
— 커지다오바오(科技导报)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81)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중국이 경제발전의 '독일화'로 지향하는 제조대국의 모습이란 (다이아몬드온라인, 2021.8.18)
- ▶ 사상 최강의 '일꾼 내각'은 무엇이었나, 스가 총리가 거듭 실패를 거듭한 가장 큰 이유
(President Online, 2021.8.17)
- ▶ 일본 코로나 패전으로 이제는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전락한 것인가? (현대비즈니스, 2021.8.17)
- ▶ '올림픽을 강행한 일본의 리더'와 '태평양 전쟁에 뛰어든 리더'는 이렇게 닮았다
(현대비즈니스, 2021.8.16)
- ▶ '경기침체로 인해, 도쿄는 더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착각하기 쉬운 '인바운드 수요'의
뜻밖의 '현실' (분순 온라인, 2021.8.17)

주간 NEWS

1. 소고우 인수로 검색 역량 강화하는 텐센트 (봉황과기凤凰科技, 2021.8.18)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검색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다. 텐센트의 정보 흐름과 위챗을 강화하고자 하는 소고우(搜狗) 인수는 더 주목할 만한 신호가 두 가지 있다.



사진 1)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국가시장감독총국은 7 월 13 일 텐센트홀딩스유한공사의 소고우(搜狗) 지분 인수를 조건없이 승인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현재 인터넷 반독점 국면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8 월 9 일 소고우(搜狗)는 2021 년 2 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여 텐센트의 소고우(搜狗) 인수 최신 시기를 공개했다. 소고우(搜狗)의 민영화 거래는 2021 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소고우(搜狗)는 텐센트의 간접 자회사가 된다.

인수합병 완료는 텐센트와 소고우(搜狗) 자체 또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전반적인 경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검색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다. 텐센트의 경우 검색+정보 흐름, 위챗 검색+미니 프로그램이 상호기능을 부여하는 폐쇄 루프를 이미 형성했다. 이번 소고우(搜狗) 인수로 텐센트는 소소(搜搜)에서 실패한 검색 전략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보 흐름과 위챗도 크게 강화될 것이다.

01. 바둑 알 소고와 그 배후의 바둑 기사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의 기본 조건이 약세인 위치다. 면적이 베이징의 1/23 에 불과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고 광물이 부족하고 식수조차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정치상황 중 가장 복잡한 지역 중 하나인 말라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정치와 경제에서 이중 기적을 만들어냈다. 1964 년 독립 이후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섬에서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하나가 되었다.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리관유는 싱가포르의 생존 방식을 한 문장으로 지적했다. "한 지역에서 두 개 이상 대국이 경쟁한다면 소국은 합종연횡의 공간이어야 한다."

소고우(搜狗)는 인터넷 회사 중 싱가포르와 같다.

소고우(搜狗)는 오랫동안 거인 사이의 바둑알처럼 존재했다. 왕샤오추안(王小川)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잘 활용했다.

2010 년 치후(奇虎) 360 CEO 조우홍이(周鸿祎)가 소고우(搜狗)를 합병하려 했다. 그는 장차오양(张朝阳)에게 소고우(搜狗)의 브라우저 사업을 360 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고, 동시에 360 과 소후(搜狐)는 검색 전문 합자회사를 설립했다.

그해 검색엔진 시장에서는 바이두가 독보적으로 검색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며 번성했다. 조우홍이(周鸿祎) 말에 따르면 그는 "특히 검색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바이두 한 회사가 독점하는 국면을 깨고 싶었다."라고 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왕샤오추안(王小川)은 그해 5 월 단신으로 항저우의 마원을 찾아가 알리가 소고우(搜狗)에 투자하여 조우홍이(周鸿祎)를 타격하기를 바랐다.

마원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3 가지 포인트다. 1. 투자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지, 2. 이를만한 기회가 있는지, 3. 자신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3 가지다. 왕샤오추안(王小川)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했다. 1. 장차오양(张朝阳)의 가치관과 주주신분으로 이념부터 현실까지 고루 갖춘 신뢰를 말했다. 2. 할 수 있음 3. 바이두에 대항할 수 있고 알리바바에도 장점이 됨을 말했다.

한 시간 동안 담화한 후 마원은 소고우(搜狗)에 대한 알리바바의 투자를 확정했다.

이후 알리바바와 소후(搜狐)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소고우(搜狗)를 공동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2010 년 8 월, 소후(搜狐) 그룹은 산하의 검색 사업 소고우(搜狗) 분사와 독립 운영을 발표하고, 소후(搜狐) CTO 왕샤오추안(王小川)을 소고우(搜狗)의 CEO 로 임명했다. 10 월 알리바바 그룹은 소고우(搜狗)에 1500 만 달러를 투자해 소고우(搜狗) 지분 10%를 획득했다.

이 전투 후 왕샤오추안(王小川)은 조우홍이(周鸿祎)에게 합병되는 운명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고우(搜狗)의 독립통제권도 얻었다.

이러한 멋진 합종연횡을 왕샤오추안(王小川)은 3 년 후에 똑같이 한 번 더 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알리바바에서 텐센트로 바뀌었다.

2013 년, 조우홍이(周鸿祎)는 소후(搜狐)에게 다시 소고우(搜狗) 인수를 제안했다. 그는 여전히 바이두에 도전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CNZZ 데이터에 따르면 2013 년 8 월 PC 검색 시장 점유율에서 바이두, 360, 소고우(搜狗)는 1, 2, 3 위를 차지했다. 360 이 18%, 소고우(搜狗)가 10.35%를 차지하며, 두 업체가 합병될 경우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30%가 된다.

그해 7 월 왕샤오추안(王小川)은 선전(深圳)으로 날아가 텐센트 고위 관리들과 협상을 벌였다. 동시에 바이두도 이번 인수 경쟁에 참여했다. 인터넷 강호에서는 왕샤오추안(王小川)으로 인해 '소고우(搜狗)를 놓고 3 사가 경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종적으로 텐센트는 소고우(搜狗)의 백기사가 됐다. 텐센트는 2013 년 9 월에 소고우(搜狗)에 4.48 억 달러를 투자하여 소고우(搜狗)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2021 년 2 월 데이터에 따르면 텐센트는 소고우(搜狗) 주식의 39.1%, 소후(搜狐)는 소고우(搜狗) 주식의 33.8%를 보유하며 1 위와 2 위를 차지했다.

왕샤오추안(王小川)은 텐센트로부터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독립 통제와 막대한 자원이다.

새로 설립된 소고우(搜狗) 회사에서 장차오양(张朝阳)은 계속 동사장을 역임하고, 텐센트의 류츠팅(刘炽平)총재와 런위쑤(任宇昕) COO 가 이사를 역임하고, 왕샤오추안(王小川)은 계속 동사장겸 CEO 로 소고우(搜狗)를 이끌고 나갔다.

텐센트가 소고우(搜狗)의 지분을 인수한 후, 양사는 3 가지를 수행했다. 첫째, 텐센트 산하의 QQ 입력 방식과 소고우(搜狗) 사업의 관련 자산과 인력을 소고우(搜狗)에 병합하여 소고우(搜狗)의 사업을 주도했고, 둘째, 소고우(搜狗)가 QQ, 위챗이 보유한 대량의 사용자에게 소고우(搜狗) 입력법과 소고우(搜狗) 검색 등 제품을 제공하게 했고, 셋째, 소고우(搜狗)가 위챗 검색 기능을 독점 출시하고, 위챗 공식 계정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획득하게 했다.

텐센트가 소고우(搜狗)에게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기꺼이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원과 돈을 주고 통제하지 않는다. 텐센트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

답은 텐센트가 소소(搜搜)에서 패배한 것에 숨겨져 있다.

02. 텐센트 소소(搜搜) 큰 패배

텐센트 소소(搜搜)는 2006 년 출시부터 2013 년 소고우(搜狗) 통합까지 7 년 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에서 시작하면 텐센트가 자체적으로 검색을 한지는 4 년이 넘었다.

이 4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텐센트 소소(搜搜)는 '요란한 진군—대 확장—급작스런 하락'의 롤러코스터 순환을 겪었다.

2009 년 7 월 텐센트 소소(搜搜)는 Google 의 기술 지원을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으로 대체했다. 이 움직임은 당시에 딱 맞아 보였다. 2010 년 구글은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중국 검색엔진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텐센트는 소소(搜搜)를 공격적으로 확장할 기회를 포착하고 Google 에서 많은 인재를 도입하여 텐센트 내에서 검색의 'Google 방(帮)'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진 2)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2011 년 텐센트 소소(搜搜)는 많은 펀치를 날렸고 검색+소셜 공유, 웨이보 검색, 새로운 검색 광고 플랫폼 츄투(赤兔), 모바일 소소(搜搜) 고객엔드 등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이 끝없이 등장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시장의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

2012 년 텐센트 검색 패배 국면은 이미 드러났다. 텐센트는 5 월 조직개편을 발표했는데 그 중 소소(搜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부서 전체가 쪼개지고 개편됐다.

거의 20 억의 손실로 텐센트의 검색 꿈은 실패로 끝났다.

텐센트 소소(搜搜)의 수명이 짧은 것은 주로 대기업의 전형적인 창업병에 기인한다. 그저 데이터와 KPI 만 중시하고, 전체 전략에서 검색의 기본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인물이 없다.

대기업의 전문 경영진은 뛰어난 성과를 대가로 멋진 KPI 를 사용하는 데 능숙하지만 아무도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소고우(搜狗)의 검색+입력+브라우저의 '3 단계 로켓' 전략이다. 왕샤오추안(王小川)은 검색의 기본 논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다. 입력방식은 검색 앞의 문이고 입력방식은 사용자의 습관을 바꿔야 하므로 브라우저를 해야 한다.

소소(搜搜)의 실패로 텐센트는 검색 꿈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시기 소고우(搜狗)에 대한 투자는 텐센트가 검색 꿈을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다.

텐센트가 소고우(搜狗)에 투자한 후 항상 평화로웠던 마화팅(马化腾)이 내부 이메일에서 흥분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소고우(搜狗) 회사로 희망을 띄웁니다. 소고우(搜狗)와 텐센트 업계 선두 기술과 팀이 합쳐지고, 양방의 플랫폼과 트래픽에 힘입어 선도적인 기술, 우수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갖추고 고속 성장을 하는 검색 엔진을 만들어 중국 검색 시장의 패턴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7 년 후, 텐센트가 전액 출자하여 인수한 소고우(搜狗)는 마화팅(马化腾)의 꿈에 또 다른 주석을 달았다.

03. 검색 재정비하고 정보 흐름에 배팅

현재 소고우(搜狗)는 이미 텐센트와의 통합 단계에 진입했다. 지에미엔신문(界面新闻) 보도에 따르면 소고우(搜狗)에 입사한 직원은 소고우(搜狗)와 텐센트 직원증 두 썬트를 준비해야 하며, 소고우(搜狗)측 오래된 직원도 점차 텐센트 직원증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소고우(搜狗)의 원래 창립자 왕샤오추안(王小川)은 회사를 떠나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소고우(搜狗)의 제품과 인력이 텐센트에게 역량을 기여한다는 단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소고우(搜狗)가 텐센트에 합병된 후 인수한 조직은 텐센트의 PCG 사업그룹의 칸디엔(看点)팀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대량의 업무 이전 작업은 텐센트 부총재이자 정보흐름 비즈니스 책임자인 인위(殷宇)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은 PCG 에 국한되지 않으며 소고우(搜狗) 검색 외 기타 사업팀도 텐센트의 다른 비즈니스 그룹에서 통합할 적합한 팀을 찾을 것이다.

정보 흐름과 검색은 어떤 관계가 있나?

바이트댄스 CEO 장이밍(张一鸣)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내부 연설에서 "검색 장면 확장과 고품질 콘텐츠가 없다면 토크(头条)의 성장 공간은 그저 4000 만 DAU 에 불과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사실 정보 흐름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검색의 변종에 불과하다. 이것이 검색출신인 장이밍(张一鸣)이 진러토크(今日头条)를 만들고, 이전 검색 패권을 쥔 바이두가 정보 흐름에 대거 배팅한 이유다. 텐센트 PCG 칸디엔(看点)팀에는 수백 명의 검색출신팀이 있다.

PCG의 정보 흐름 사업은 바로 텐센트가 내놓은 새로운 검색 카드다.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는 반복되는 대결의 오랜 라이벌이다. 정보흐름 사업은 바이트댄스의 거점이며, 텐센트가 수년간 고군분투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정보 흐름 전쟁에서 텐센트가 보낸 첫 번째 군단은 티엔티엔콰이바오(天天快报)였다. 그러나 티엔티엔콰이바오(天天快报)는 바이트댄스의 진러토투타오(今日头条)에 조금도 힘을 못냈고 텐센트 본사를 매우 불만족스럽게 만들었다.

QQ 칸디엔(看点)이 두드러진 것이 텐센트가 정보 흐름 전쟁에서 장악한 한 지점이다. 2018년 1분기 텐센트는 재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QQ 칸디엔(看点)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했으며 일일활성사용자는 8000명을 초과했다. 인위(殷宇)는 마침 QQ 담당자였다.

이때 텐센트는 3가지 정보흐름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티엔티엔콰이바오(天天快报), QQ 칸디엔(看点) 외에도 QQ 브라우저 정보흐름도 있다. 텐센트의 '경주' 전통으로 인해 세 제품은 독립적이고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텐센트의 정보 흐름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장기간 바이트댄스보다 뒤쳐졌다.

2018년 텐센트는 '930 변혁' 이후 중간층의 10%를 폐지했다. 이 변화는 또한 텐센트가 군대를 재편성하고 군대가 정보 흐름을 촉진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티엔티엔콰이바오(天天快报)에 속한 OMG 비즈니스그룹의 흥미 읽을거리 제품부서는 인위(殷宇)의 QQ 칸디엔(看点)팀에 전부 통합되었다. 이로부터 텐센트의 정보 흐름 비즈니스는 인위(殷宇) 아래에 통합되었다.



사진 3)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2019년 5월 인위(殷宇)는 텐센트가 QQ 칸디엔(看点), QQ 브라우저 정보흐름, 티엔티엔콰이바오(天天快报) 세 가지 제품을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병 후 일일활성사용자는 1.58억 명에 달했다. 11월, 텐센트는 정보 흐름 분야에서 통일되고 통합된 '텐센트 칸디엔(看点)' 브랜드를 출시했다. 이때 3개 정보흐름 제품의 중복제거 DAU는 1.85억으로 반년 만에 2700만이 늘었다.

이때부터 텐센트 정보 흐름 서비스 사용자는 바이두와 바이트댄스를 능가했으며 중국내 정보 흐름 사용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제품이 되었다. 이 세 회사는 중국내에서 1 억 명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있는 정보 흐름의 제 1 층위에 속한다.

소고우(搜狗)팀이 텐센트 PCG 칸디엔(看点)에 통합된 후 검색 기능을 부여하여 정보 흐름을 강화하면서, 텐센트 PCG 정보 흐름의 변혁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것은 텐센트가 미래에 바이트댄스를 잡 못 이루게 할 예리한 검으로 만들 것이다.

04. 위챗의 검색 야망

위챗은 검색에 대한 큰 야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2017 년 4 월 25 일 위챗사업그룹 내부에 검색 응용부서를 신설하여, 외부정보검색을 개시했다. 이전에 사람들은 위챗으로 검색할 때 그저 채팅, 모멘트, 공식 계정과 같은 내부 위챗 정보만 검색할 수 있었다. 위챗은 개방 후 포털, ZAKER, 즈후(知乎), 도우반(豆瓣)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외부사이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은 위챗이 곧 모바일 인터넷 검색 환경에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위챗이 자신의 내부에 '바이두'를 만든거 아닌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장샤오룽(张小龙)의 그림을 과소 평가했다.

2019 년 장샤오룽(张小龙)은 위챗팀에 직접 검색 임무를 배치했다.

장샤오룽(张小龙)은 검색이 미니 프로그램의 주요 트래픽 원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니프로그램과 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PP 은 정보의 고립된 섬이며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니프로그램은 시스템에 의해 통일적으로 검색될 수 있으며, 미니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을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장샤오룽(张小龙)이 말했다.

위챗은 이를 위해 몇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항공편 번호를 확인하려면 항공편 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미니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파일럿에 불과했고, 당시 위챗은 아직 모든 미니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콘텐츠를 찾을 수 없었고, 사용자를 미니프로그램에 직접 연결했다.

"PC 인터넷에 비해 모바일 인터넷의 각 App 은 파편화되고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니프로그램을 만들 때 꿈이 있었습니다. 검색이 모든 미니프로그램 내부에 들어가 그것의 내용을 검색하여 찾아낼 수 있고 사용자를 미니프로그램에 직접 연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 장샤오룽(张小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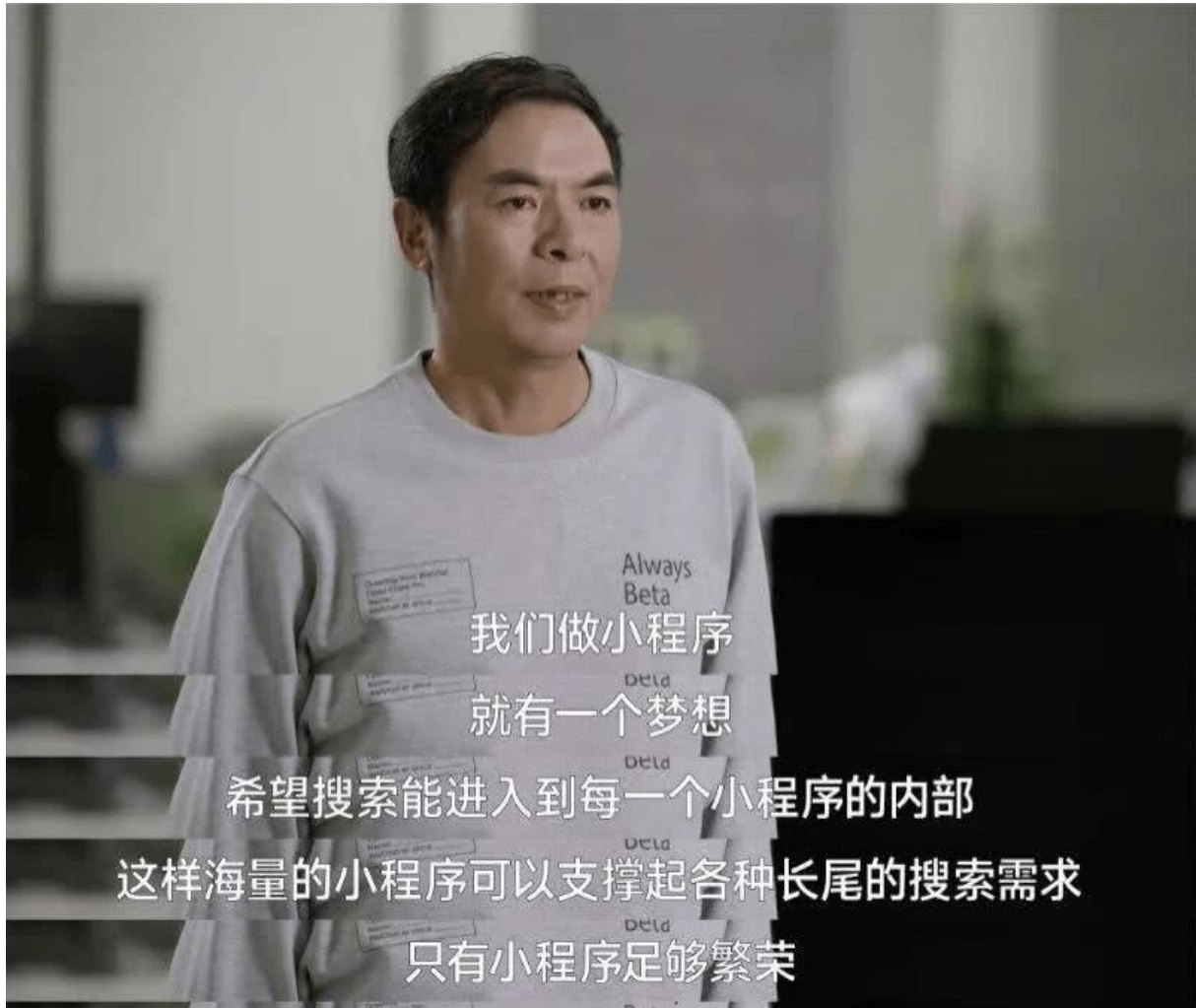


사진 4) 출처: 봉황과기(凤凰科技). 텐센트 부총재이며 위챗 창시자 장샤오룽(张小龙)

분명히 장샤오룽(张小龙)의 꿈은 단순한 검색 꿈이 아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위챗 내에서 인터넷을 복제하는 것이다.

12 개월 후, 위챗은 2019 년 12 월 11 일 위챗 검색을 공식적으로 '위챗 소이소(搜一搜)'로 업그레이드했다. 위챗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공식 계정, 미니 프로그램, 게임, 백과사전, 의료 상담 등 20 가지 이상의 정보 콘텐츠를 획득할 수 있다.

동시에 위챗은 검색 경로를 부단히 단축하고 있다. 2020 년 9 월 위챗 소이소(搜一搜)는 '손가락 끝 검색' 기능을 출시했다. 사람들은 위챗 채팅 중에 채팅 텍스트를 길게 누르고 메뉴에서 '소이소(搜一搜)'를 클릭하여 검색하고, 정보 및 서비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검색 인터페이스 열기 - 키워드 입력 - 검색 클릭 - 결과 얻기'와 비교하여 상당히 경로가 단축되었다.

경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위챗만이 이런 채팅 검색 애플리케이션 장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챗은 바이두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바이두는 위챗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일단 사용자의 습관이 길러지면 사용자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뻔하다.

위챗 소이소(搜一搜)의 제품 운영 총감인 량저펑(梁泽锋)은 "위챗은 소이소(搜一搜)의 경계 정의를 아주 광범위하게 하고 있으며 경계가 없습니다."라며 "검색은 위챗 생태계 인프라이므로 위챗 생태계에서 순환하는 모든 자원은 검색이 가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위챗과 소고우(搜狗)는 줄곧 장기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소고우(搜狗)의 전체 검색 트래픽 중 1/3 이상이 텐센트에서 발생하며 이중 대부분이 위챗에서 발생한다. 위챗 검색은 오랫동안 소고우(搜狗) 검색 엔진을 사용했으며 위챗 공개 플랫폼 콘텐츠도 소고우(搜狗)에게만 공개되어 있다. 소고우(搜狗)는 이를 위해 위챗 검색 전문존을 출시했다.

소고우(搜狗)가 텐센트와 합병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위챗의 검색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위챗이 검색 레이아웃을 더 빨리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05. 맺으며: 텐센트가 검색 환경을 재편할 수 있을까?

검색에 비중을 두는 인터넷 거물은 텐센트만이 아니다.

2020년 2월 바이트댄스 산하의 '토우타오 검색(头条搜索)'이 독립 App으로 출시되어 '검색+정보 흐름' 이중 엔진으로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6월, 알리바바 혁신 비즈니스그룹은 스마트 검색사업부를 설립했으며, UC 사업부 총경리이자 슈치(书旗)사업부 총경리 우지아(吴嘉)를 책임자로 두고 스마트검색 App Quark(夸克)를 배치했다.

같은 기간 알리페이 검색 사업은 재통합되어 처음으로 독립 사업부가 되었다. 전 타오바오검색 제품총감 위엔화이빈(袁怀宾)이 알리페이 검색 사업의 '1위 자리'로 이임했다. 검색은 이미 사용자가 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핵심 트래픽 입구가 되었다. 독립부서 신설은 검색의 전략적 의의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검색 전쟁에서 바이두는 여전히 1위다. 데이터통계기관 Statcounter의 2021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중국내 검색엔진 시장에서 바이두 전체 플랫폼(PC, 모바일, 태블릿 기기)이 1위로 73.86%에 달하고, 소고우(搜狗)가 2위로 18.99%에 달했다. 데이터 추세로 볼 때 바이두는 오랫동안 중국내 주류 검색 엔진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그 위치는 흔들리기 어렵다.

따라서 텐센트의 소고우(搜狗) 인수는 순수 검색 분야의 경쟁 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검색 장면에 강력한 경쟁자를 추가할 것이다. 텐센트의 정보 흐름과 위챗 강화는 이렇게 두 가지 더 주목할만한 신호가 있다.

2. 바이두 월드컨퍼런스에 펼쳐진 바이두가 꿈꾸는 미래 사회

(지동서智东西, 2021.8.18)

8월 18일 오늘 아침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바이두 월드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바이두 창립자이자 회장이자 CEO인 리홍옌(李宏彦)과 CCTV 사회자 사베이닝(撒贝宁)이 함께 오프닝을 열었다.

올해 바이두 월드컨퍼런스는 계속해서 바이두와 CCTV 뉴스에서 공동으로 라이브방송 형식을 사용한다. 동시에 CCTV News는 최첨단 AR, XR 기술을 사용하여 이번 바이두 월드컨퍼런스에서 사용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운행, 생활, 산업, 자주 혁신 과학기술 분야에서 바이두 인공지능(AI)의 최신 성과를 보여주었다.

스마트 운행을 위해 바이두는 L5 자율 주행 기능을 갖춘 Apollo 기반 최초의 '자동차 로봇' 컨셉카를 출시하고 무인차 운행서비스 플랫폼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



사진 1) 출처: 지동서(智东西). 바이두 CEO 리훙옌(李彦宏)과 CCTV 사회자 사베이닝(撒贝宁)



사진 2) 출처: 지동서(智东西)

스마트 라이프를 보여주고자 바이두 APP 홍보대사 공쥔(龚俊)이라는 디지털 인물이 최초로 등장해 현장에서 노래하고 춤췄으며, 바이두는 또한 회전 스마트화면, 스마트 거대스크린 TV, 스마트 사전펜, 스마트 이어폰을 포함한 4종의 사오두 신제품을 출시했다.

스마트 산업을 위해 리훙옌(李彦宏)은 현장 다이빙팀의 조우지홍(周继红) 주석과 연결했으며 바이두는 추안저우(泉州), 신장(新疆), 리장(丽江), 수저우(苏州) 현장에서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를 구현한 사례를 전시했다.

독자적 기술 혁신을 목표로 바이두는 바이두 대뇌 7.0 버전을 출시하고 올해 자체 개발한 7nm 쿤룬(昆仑)칩 2 양산을 발표했으며 AI 인재 양성 플랫폼 송커학당(松果学堂) 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와 세계 최초의 화성 디지털인간 주룽하오(祝融号)를 공동 발표했다.



사진 3) 출처: 지동서(智东西)

01. '자동차로봇' 컨셉카 선보이며 무인자동차 운행서비스 플랫폼 런칭

컨퍼런스에서 리옌훙(李彦宏)은 '자동차 로봇'의 미래 지향적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아폴로 '자동차 로봇'과 바이두의 무인 자동차 운행 서비스 플랫폼 브랜드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를 공개했다.

그는 스마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는 점점 더 로봇처럼 될 것이라고 보았다. 동시에 미래 주류 '로봇' 형태는 '자동차 로봇'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운전대도 없고, 액셀도 없고, 앞에는 고리형 스크린이 있고... '자동차 로봇'의 디자인은 관례를 깨고 자동 윈도우, 풀 글라스 루프, 외부 센서 등이 완전히 일체로 융합되어 있고, 스마트 콘솔, 변광 유리, 무중력 좌석 등 스마트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로봇' 컨셉카에 앉아 사베이닝(撒贝宁)은 "개인 영화관처럼 느껴지고 거실과 같다."며 감탄했다.



사진 4) 출처: 지동서(智东西)



사진 5) 출처: 지동서(智东西)

바이두는 자동 로봇 출시와 함께 무인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리엔홍(李彦宏)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 플랫폼 브랜드 이름 '로보콰이파오(萝卜快跑)'를 발표했다. 이것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차량 호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난 2 년 동안

Apollo 의 운영 경험을 결합하고 대중에게 상업 운영과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인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한다.



사진 6) 출처: 지동서(智东西). 바이두 산하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로보콰이파오(萝卜快跑)



사진 7) 출처: 지동서(智东西)

2021 년 상반기 기준 바이두의 아폴로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는 40 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했고 1400 만 킬로미터 이상을 테스트했다.

자율주행 특허 수는 2900 개를 넘으며, 베이징, 광저우, 창사(长沙), 창저우(沧州) 등 도시에서 승객 서비스를 개방했다. 리옌홍(李彦宏)은 3 년 이내 30 개 도시가 '로보콰이파오(萝卜快跑)' 서비스 지역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 8) 출처: 지동서(智东西)

02.AI 생활: 공쥔(龚俊) 디지털인간이 처음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사베이닝(撒贝宁)이 바이두의 스마트 검색과 노래방에 도전



사진 9) 출처: 지동서(智东西)

컨퍼런스에서 바이두 그룹 집행부총재 셴도우(沈抖)는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바이두 앱은 'AI 집중도'가 매우 높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했다.

AI 기술의 축복으로 인터랙티브 형식 검색 기능은 더욱 다양해져 텍스트 입력에서 음성, 그림, 기계 문답까지 있고, 검색의 표시 형식과 응용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바이두 APP 음성 검색 인식 정확도는 98%에 도달했다.

바이두 APP 홍보대사 공쥔(龚俊) 도 현장에 와서 주걸룬의 <야곡>을 불렀다.

공쥔(龚俊) 디지털인간이 사용하는 많은 AI 기술이 바이두 APP 에 적용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TTS 음성 기능이다. 공쥔(龚俊) 디지털인간이 노래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AI 기술로 합성된 것이다. 공쥔(龚俊) 디지털인간과 동일한 음성 패키지는 현재 바이두 APP 에 업로드된 상태이며 사용자는 동일한 음성 패키지를 사용하여 뉴스를 들을 수 있다.

동시에 사용자는 음성을 20 구절 녹음하여 독자 맞춤형 제작한 개성화된 음성 패키지로 자신의 음성으로 뉴스를 들을 수도 있다.



사진 10) 출처: 지동서(智东西)

셴도우(沈抖)는 바이두 검색 빅데이터에 따르면 업무, 생활, 건강 등에 대한 모든 사람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업로드되었다고 언급했다. 작년에 네티즌의 온라인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70% 이상 증가했고, 야간경제에 대한 수요는 189% 이상 증가했으며, 건강 측면에서 사용자의 건강 인식이 크게 증가했으며 건강 지식과 서비스에 대한 주도적인 검색 수요가 207%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두 건강의학사전은 1500 명 이상의 학자, 원장, 위원회 수준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량으로 권위 있는 건강 항목을 편집하고 검토했으며 이러한 항목의 내용은 하루에 평균 2000 만 회 검색되고 있다.

노인의 사용 습관, 사용 장면을 겨냥해 만든 바이두 오복(五福) AI 플랫폼은 베이징 노인 그룹이 모이는 노인 커뮤니티에 진입하여 공익성의 '스마트 노인 요양소' 형식을 구축하고, 사오두(小度) 스마트 음성설비를 증정 설치하여 노인에게 스마트 서비스와 수행을 제공한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이미 속속 착륙했다.

라이브방송 중 CCTV 진행자 왕빙빙(王冰冰)은 베이징의 오래된 골목을 방문하며 사오두(小度) 스마트솔루션이 구현된 최신 성과를 경험했다. 왕빙빙(王冰冰)은 먼저 사오두(小度) 능동형 소음 제거 스마트 이어폰 Pro를 사용하여 오래된 베이징 골목 가이드를 통해 4 세대가 모여 사는 한 가옥을 탐방한 후 '사오두(小度)'를 호출하여 오래된 선풍기 등 오래된 가전 제품을 직접 제어해보았다.



사진 11) 출처: 지동서(智东西)

03. AI 산업: 'AI 트레이너'는 중국 다이빙팀 훈련을 지원하고, 4대 주요 도시의 상륙 사례를 뽐냄

AI 산업 분야에서 리옌홍(李彦宏)은 다이빙팀 조우지홍(周继红) 주석과 연결하여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가 다이빙 팀을 위해 만든 '3D+AI' 다이빙 훈련 보조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다이빙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난제를 해결하고 스포츠 일상 훈련이 보다 과학적이고 지능적이며 합리적이고 효과적하도록 도와준다.

이어서 바이두 CTO 왕하이펑(王海峰)은 추안저우(泉州) 수질업무 대뇌, 신장국왕전력(新疆国网电力), 리장(丽江)도시 대뇌, 수저우(苏州) 스마트제조 등 바이두스마트 클라우드가 기능을 부여한 산업의 실제 응용 사례를 보여주었다.

푸지엔(福建) 추안저우(泉州)에서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는 '추안저우(泉州) 수질업무 대뇌' 구축에 참여하여 도시의 수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스마트 업그레이드하고 수질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단지 1 개의 APP 와 2 명의 직원만 있으면 78 개의 오염수 처리장을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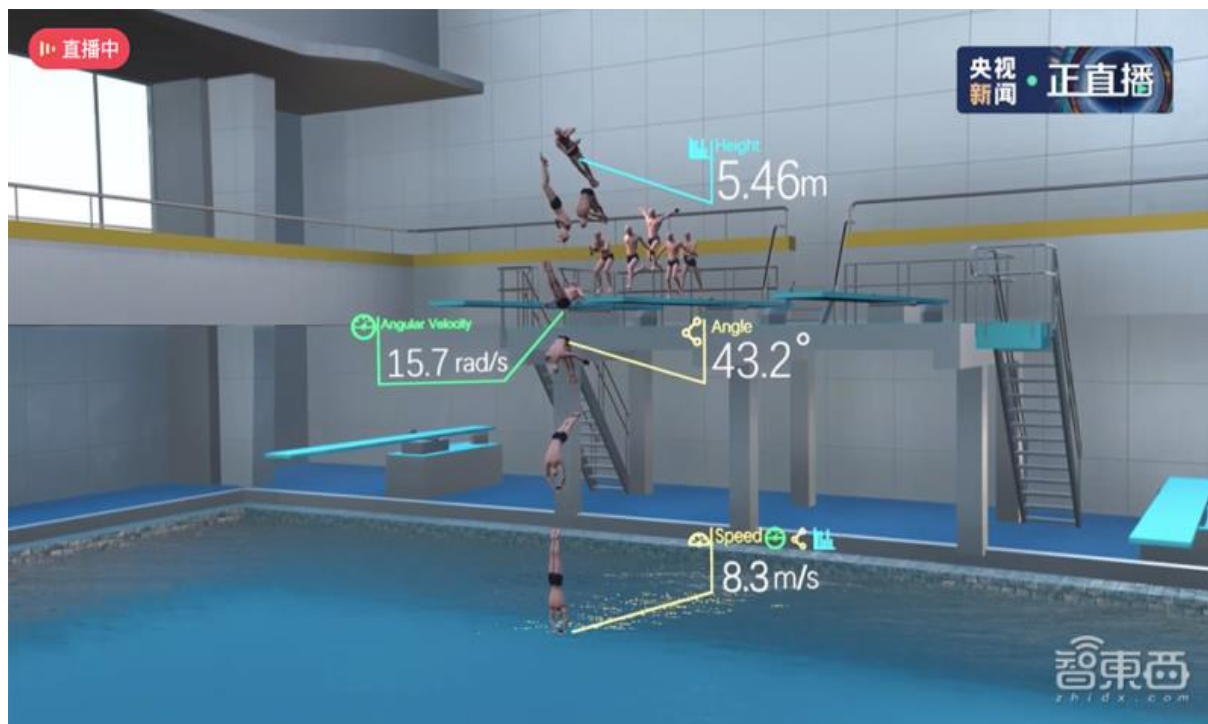


사진 12) 출처: 지동서(智东西). 바이두가 만든 '3D+AI' 다이빙 훈련 보조시스템

신장(新疆)에서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는 국가전기망전력(国网电力)과 연합하여 'AI 중간데스크'를 구축하여 신장(新疆) 전력 전송을 강력히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순회검사 위험을 줄여 검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리장(丽江)에서는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가 구축한 '도시 대뇌'가 사회 거버넌스, 문화 관광, 생태 환경 보호 등에 전면적으로 기능을 부여하여 환경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장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더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였다.



사진 13) 출처: 지동서(智东西)

쑤저우 창수(苏州常熟)에 있는 카이보(恺博) 작업장에서 바이두 스마트 클라우드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품질 검사 직원이 '듣고', '사진을 인식'하는 것을 도와 효율과 품질을 개선하고, 기업이 지식을 축적하고 침강하도록 도와, 중국의 제조 산업을 '제조'에서 '지능형 제조'로 전환하도록 촉진한다.



사진 14) 출처: 지동서(智东西)

04. 독자적 과학기술 혁신: AI 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두 송커학당(松果学堂) 설립, 7nm 쿤룬(昆仑)칩 2 양산 실현



사진 15) 출처: 지동서(智东西)

바이두는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바이두 루류(如流) 스마트 업무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영어를 출력하는 AI 동시통역도 시연했다.

중국 화성탐사프로젝트와 바이두가 연합하여 발표하는 세계 최초 화성 디지털인간 '주룽하오(祝融号)'도 현장에서 공식 공개됐다. 주룽하오(祝融号)는 사베이닝(撒贝宁)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며 "화성에 감자를 키울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을 뿐만 아니라 '화성에 오르다'라는 주제로 시를 지었다.

현장에서 왕하이펑(王海峰)은 사베이닝(撒贝宁)에게 디지털 인간을 보내줬고, 이후 왕하이펑(王海峰)은 디지털 인간에게 우주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문장으로 음성 명령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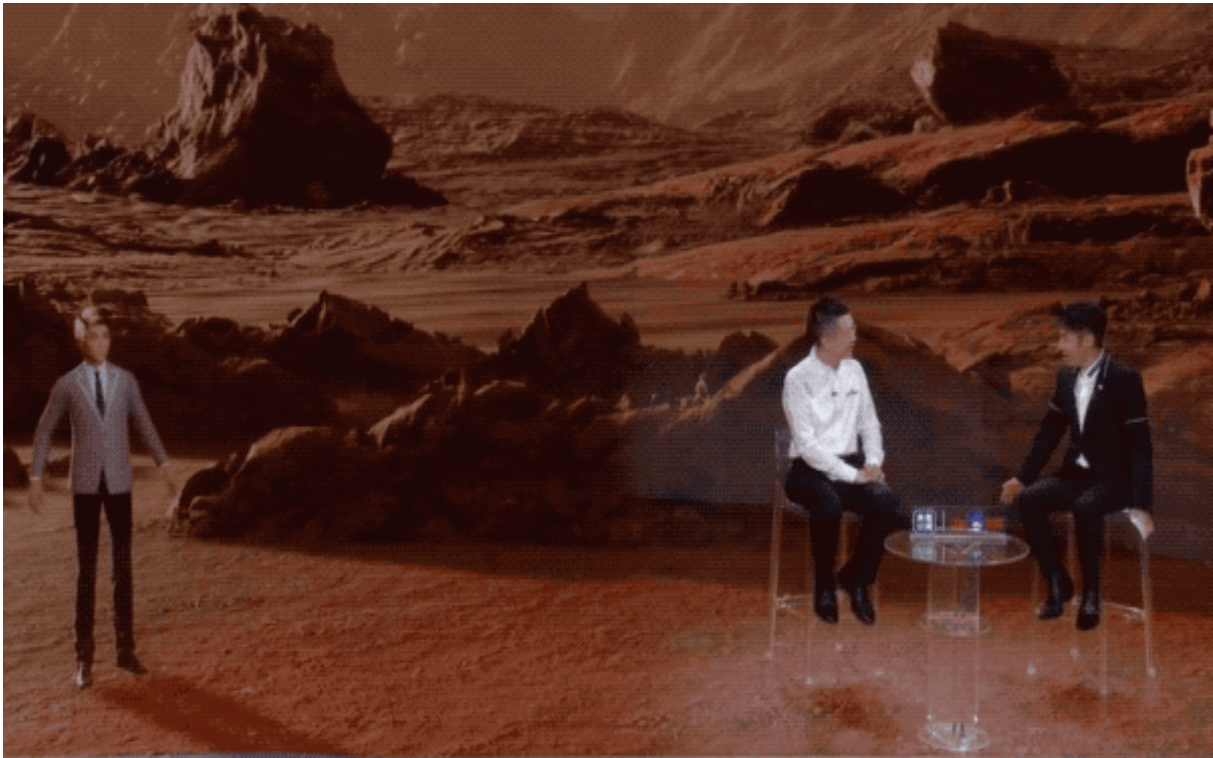


사진 16) 출처: 지동서(智东西). 왕하이펑이 디지털인간 '주룽하오'에게 명령을 내리자 우주복으로 갈아입는 장면

위의 결과 뒤에는 모두 바이두 대뇌 7.0의 기술 지원이 있다.

오늘 바이두 월드컨퍼런스에서 왕하이펑(王海峰)은 융합 혁신과 낮은 문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진 바이두 대뇌 7.0 출시를 발표했다.

융합 혁신은 지식과 심도 학습 기술 융합, 교차 모드 다중기술 융합, 기술과 장면 융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이라는 4 가지 측면에서 구현되어 AI 기능을 점점 더 강력하게 만든다.

낮은 문턱은 중국내 최초의 오픈 소스 개방, 풍부한 기능을 갖춘 산업 수준의 심도학습 플랫폼페이장(飞桨)을 구현하며, 이것은 바이두 대뇌의 핵심 기저다. 모든 개발자가 쉽게 페이장(飞桨) 플랫폼에 쉽게 접근해 자신의 필요에 따라 AI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페이장(飞桨) 플랫폼은 360 만 명이 넘는 개발자를 축적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40 만 개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13 만 개의 기업과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각계각층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바이두는 바이두 송커학당(松果学堂) 설립을 발표하여 중국의 AI 인재 양성에 힘을 실어주는 장기플랜을 견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AI 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AI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대회, 실습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왕하이펑(王海峰)은 '인재 양성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이두 송커학당(松果学堂)을 통해 중국 AI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리옌홍(李彦宏)은 바이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 세대 바이두 쿤룬(昆仑)AI 칩 2 가 양산을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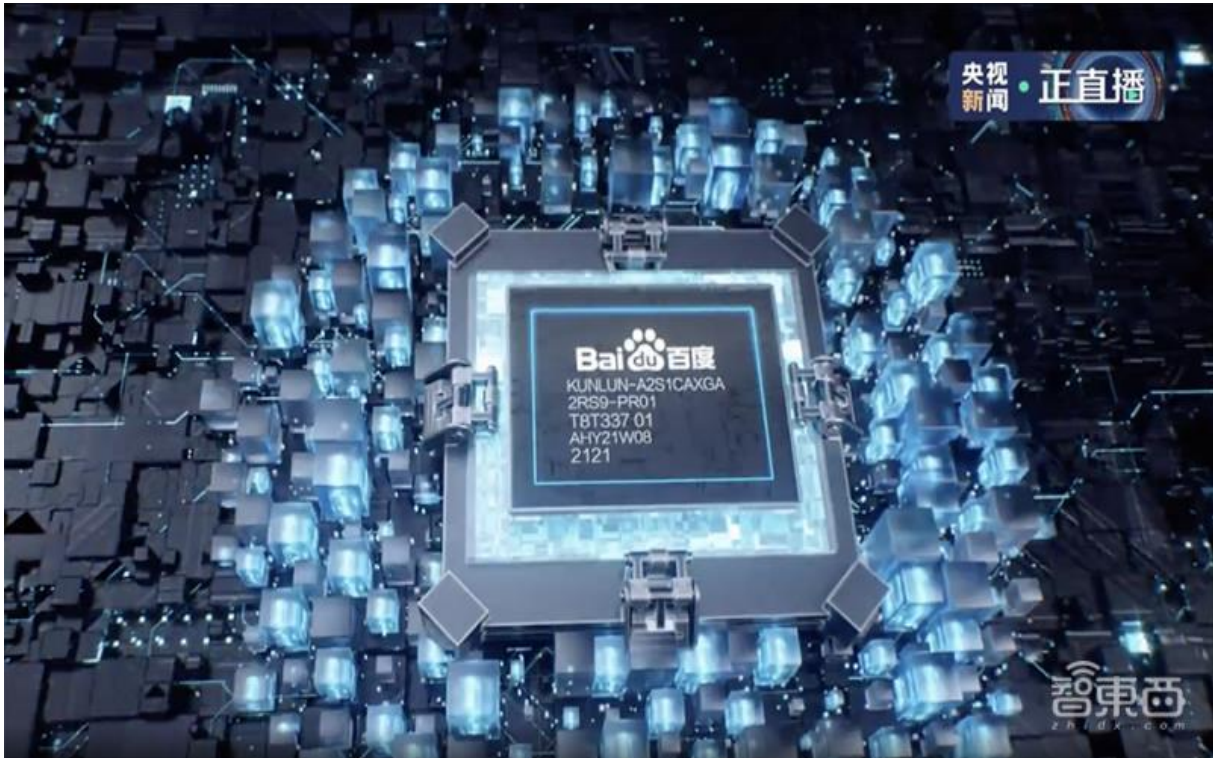


사진 17) 출처: 지동서(智东西)

2018 년 출시 이후 쿤룬(昆仑) 1 세대 AI 가속카드는 2 만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시나리오에 배치되어 스마트 클라우드/컴퓨팅 센터, 스마트 제조, 스마트 의료, 스마트 시티 및 기타 산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사용자의 AI 업무를 구현하게 했다.

쿤룬(昆仑)칩 2는 7nm 공정으로 제작했고, 자체 개발한 2세대 XPU 아키텍처를 탑재하여 1세대에 비해 성능이 2~3 배 향상되었으며, 클라우드, 터미널, 경계부분 등 여러 장면에 활용되어 향후 자율 주행, 스마트 교통, 스마트 어시스턴트 등에 사용될 것이다.

쿤룬(昆仑)칩 AI 칩과 페이팅(飞腾) 등 다양한 중국산 범용 프로세서, 기린(麒麟)과 같은 다양한 중국산 운영 체제, 바이두가 자체 개발한 페이장(飞桨) 딥 러닝 워크프레임이 종단간 적응을 완료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일체화된 풀스택 중국산 AI 역량을 보유하게 된 점을 언급할 만하다.

맺음말: AI 는 인류 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이두 월드컨퍼런스에서 집중적으로 전시된 일련의 최신 AI 성과는 중국 '과학 기술 신고지(新高地)' 좌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일반 대중이 핵심 기술 혁신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되었으며, 오늘날 테크놀로지기업이 기술로 기능을 부여하며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표지가 되었다.

바이두 AI 는 10 년 간의 지속적인 투자 끝에 마침내 수확기에 들어섰다. 우리는 운행, 검색, 학습 등 사람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장면에 스마트화가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보다 많은 산업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의 가치를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AI 시대가 도래했다. 미래 많은 세월동안 AI 가 인류 사회 발전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되고 인류 역사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3. 상하이에서 디지털 인민폐 사용체험 (팅쑤왕腾讯网, 2021.8.14)

최근 중앙은행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 R&D 진척도 백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 월 말을 기준으로 1000 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디지털 위안화 시범 프로그램에 초대되었으며, 전국 범위에서 시범장소가 132 만 곳을 초과한다. 디지털 인민폐가 상하이에서 시범 운영된 지 이미 반년이 넘었고 사용 장면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졌다. 그렇다면 상하이에서 디지털 인민폐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사실 상하이의 디지털 인민폐 시범기지의 전체적인 사고 방향은 단순히 규모를 늘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 장면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현재 단계에서 상하이에서 자유롭게 먹고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



사진 1) 출처: 텡쑤왕(腾讯网)

씨샹(熙香)음식 AI 식당 책임자 판옌핑(范艳萍)은 "현재 사용자가 많지 않지만 디지털 인민폐는 여전히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재 중국 건설은행과 프로모션 방안 개발을 논의 중인데, 예를 들어, 일정액에 도달하면 할인해주기, 쿠폰 증정 등의 형식으로 디지털 인민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외식업과 달리 디지털 인민폐가 소비 장면에서는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음을 발견했다. 현재 디지털 인민폐는 일반 대형 슈퍼마켓이나 체인 편의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디지털 인민폐로 대중교통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 지역에서 일부 택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참여 기관은 기자에게 현재 지하철, 버스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불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2) 출처: 텅쉰왕(腾讯网)

상하이유니온페이(上海银联) 비즈니스 기술개발센터 총경리 장쥔쑤(张俊鑫)은 "다음 단계에서는 디지털 RMB 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선불 카드, 국경간 전자 상거래, 하드 지갑에서 시도되고 탐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피트니스 장소, 미용 등의 산업에서 말입니다. 돈은 계좌에 예비금의 형태로 동결된 다음 오프라인에서 실제 소비 장면을 생성한 후에야 상인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 문제로 인해 상인이 도망쳐 소비자 손실을 야기하는 것을 더 잘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4. '공동 풍요' 가치를 들고 텐센트 또 500 억 기증 (36kr, 2021.8.19)

텐센트는 공동 번영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텐센트는 8 월 18 일 홍콩증시가 마감된 후 2021 년 2 분기와 상반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 분기 텐센트의 매출은 1383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9 년 2 분기 <Game For Peace (和平精英)>가 성공적으로 판호를 획득하고 상용화한 이후 텐센트의 매출 성장이 가장 느린 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트는 재무보고 발표 직후, '공동 풍요를 돕기 위해 추가로 500 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1) 출처: 왕이하오 창예방(网易号 创业邦)

텐센트는 감독환경과 사회적 영향에 전례 없는 관심을 기울였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텐센트 경영진은 “글로벌 인터넷 규제가 큰 흐름이며 인터넷 부문에서 중국의 구조화된 규제가 세계적으로 앞섰고 엄격하다. 정부는 인터넷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필요로 하며, 회사도 향후 시장의 더 많은 관리감독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이는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더 잘 높이고 회사 행동을 규범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규제 정책의 새로운 물결을 충분히 융합하고 수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계속해서 사업에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이 회사의 장기 비즈니스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Saas, 게임, 쇼트클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것이고 단기 비즈니스 결과도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텐센트 게임은 예상보다 낙관적이다.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텐센트의 2 분기 게임 수익은 430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모바일 게임 부가가치 서비스 수익은 13% 증가한 408 억 위안, 개인 컴퓨터 고객의 게임 수익이 1% 증가한 110 억 위안, 소셜 네트워크 수익은 9% 증가한 290 억 위안이었다.

텐센트가 인정하든 안하든, 지연을 통해 게임 수익을 줄이는 방법에 관계없이 시장은 항상 텐센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게임으로 본다. 얼마전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설명하는 기사를 냈다. 비록 이는 직접적인 규제 정책은 아니지만 시장의 강한 불확실성과 비관론으로 인해 텐센트의 시장 가치는 곤두박질쳐 당일 거의 10% 가까이 폭락했다. 이후 텐센트는 미성년자가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과 돈을 제한하고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 도입할 것이라고 즉시 발표했다.

그리고 미성년자 게임 흐름을 공개하는 것은 텐센트 재무보고의 전통이 될 수 있다. 이번 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16 세 미만 플레이어는 중국에서 텐센트의 게임 매출의 2.6%를, 12 세 미만 플레이어는 0.3%를 차지했다.

반년 전 텐센트는 재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게임 소비를 언급했다. 2020 년 4 분기에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중국에서 텐센트의 온라인 게임 매출의 6.0%를 차지했고, 16 세 미만 미성년자의 비율은 3.2%였다.

즉, 비교 대상인 16 세 미만 플레이어 범위에서 텐센트는 흐름비율을 3.2%에서 2.6%로 더욱 줄였다.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공개는 여론과 감독에 대한 텐센트의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 전 증권일보(证券时报)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인 게임산업이 세제혜택을 누리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논평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목소리가 정책 수립을 촉진한다면 텐센트 매출의 1/3 을 차지하는 게임 사업의 총 이익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차이쑤(财新)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 Citibank(花旗) 애널리스트는 텐센트의 게임 사업 세율이 25%로 인상되어 향후 2 년 동안 텐센트의 수익이 각각 8.9%~9.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텐센트의 법인세율이 10%에서 15%로 오르면 텐센트의 주당 순이익이 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텐센트 자체는 여전히 세율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올해 9 월 기업의 실효 세율이 20%로 지난해 8%의 2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다. 텐센트 측에서는 경영진이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가 감소했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2021 년 텐센트의 실효 세율은 11%로 작년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쌍방의 추정이 정확하다면, 알리바바의 주요 수입원인 인터넷 광고와 수수료의 세율이 크게 인상될 수 있으며, 텐센트의 주요 수입원인 게임 세율이 최근 세율 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언급할만한 것이 올해부터 아시아의 상장 기업 거두 중 TSMC, 토요타, 초상은행, CATL 과 같은 비인터넷 기업만이 시장 가치를 높인 반면, 양대 인터넷 거인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시장 가치의 약 1/4 이 하락했다. 그 중 TSMC 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잇달아 제치고 일시적으로 아시아 최고 시장 가치 기업 1 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 대기업 규제 조치에서 알리바바는 반독점 혐의로 182 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텐센트가 받은 것은 도리어 벌금만이 아니었다.

텐센트 음악은 반독점과 배타적 음악저작권 구입이 금지되었지만, 이 또한 저작권 전쟁 비즈니스의 관성 밖으로 나오도록, 짧은 비디오 환경하의 온라인 음악 산업 경쟁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촉진했다. 후야(虎牙)와 도우위(斗鱼)의 합병안은 실제로 규제를 받았지만 2018 년 초 텐센트가 후야(虎牙)에 투자했을 때의 업계 환경과 비교할 때 이 합병의 의미는 매우 작다. 또한 텐센트가 작년에 발기한 소고우(搜狗) 인수안은 감독부서로부터 순조롭게 허가를 받아 텐센트가 일부 검색추천과 인공지능팀을 획득하게 했다.

빨리 달리는 것은 오래 달리는 것만 못하다

게임 외에 텐센트의 재무 보고서는 2 분기 온라인 광고 수익이 228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금융 과학기술과 기업 서비스 수익은 419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재무보고에 따르면 6 월말까지 웨이신(微信)과 WECHAT 월활성계정이 12.5 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QQ 스마트종단 월활성계정이 5.909 억으로 6 억에서 추락해 전년 동기대비 8.8% 감소했고, 유료 부가가치 서비스 회원수가 2.29 억 명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이전 분기와 비교할 때 이러한 성장은 이상적이지 않다. 이제 사람들이 번 돈에서 기꺼이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텐센트가 2 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하기 하루 전, 국가통계국도 7 월 국가경제운행 현황을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7 월 소비자품 소매 판매 총액은 3 조 4925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으며 6 월 대비 3.6 %포인트 급감했다.

거시 경제, 특히 소비 데이터도 텐센트와 같은 플랫폼 회사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기에 이어 3 분기 실적발표는 여름 성수기라 해도 텐센트가 지난 2 년 동안의 성장률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통계국에서 수집한 국가 소비 데이터에는 텐센트의 미디어, 게임, 광고, 결제, 금융 비즈니스가 위치한 서비스 산업과 소매 산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규제 환경에서 사회 전체와 산업 전체에 가까운 저성장은 텐센트와 같은 5000 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게 보다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인 발전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텐센트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텐센트는 4 개월 전 500 억 위안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혁신' 전략을 시작했는데, 재무 보고 당일, 텐센트는 다시 '공동 풍요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자금을 500 억 위안 더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체 디지털과 기술력을 심층 결합하고, 농촌 진흥, 저소득층 소득 증대, 기층 의료 시스템 개선, 교육 균형 발전 등 민생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투입한다고 했다.

이것은 하루 전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 10 차 회의 정신의 인터넷 기업 버전의 표현이다. 텐센트는 공고에서 2500 억 위안의 자금 '하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현재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 칭하며 두 500 억 위안 자금을 '3 차례에 걸쳐 분배'하며 기업의 주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며, 사회 복지를 향상하고 공동 번영에 조력하는 것을 계속 탐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막대한 자금 외에도 '디지털 제품과 과학기술 혁신 능력'은 텐센트가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방안이다. 텐센트는 지난 7 월 허난(河南) 수해구호 원조활동 중 '텐센트 문서'를 내걸고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를 포착했고, 자신이 줄곧 바라던 '커넥터' 사명을 맡았다.

한편으로는 지난 2 년간 성장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한편으로는 500 억, 다시 또 500 억 위안이 라는 막대한 금액이 사회공익에 투입되었고, 텐센트는 산업에서 인터넷과 사회가 함께 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다른 거물들에게는 따를 것인지, 어떻게 따를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명제다.

오늘날 '선한 기술'을 추구하는 텐센트는 크게 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 오래 달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미 깊이 알고 있다.

ISSUE 및 시장동향

1. '탕핑족' 중국 젊은이들이 일으킨 '고독 경제' — 이오왕(亿欧网) 제공

홀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영화관에 가는데... 사실 꽤 괜찮다. 고독이 하나의 사업이 되면 '탕핑족'은 계속하여 돈을 쓸까? 감성 마케팅이 범람하게 되면 사물이 갖고 있는 가치는 보장될 수 있을까? 고독 경제는 이미 다가와 트랙은 붐비고 형식은 단일한데 관련 산업은 어디로 가야 할까?



사진 1) 출처: 이오왕(亿欧网)

일찍이 언제부터 요즘 젊은이들에게 '탕핑(躺平)'이라는 표식을 붙였을까?

그들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고, 아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집을 사지 않고, 차를 사지 않는다.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한다.

욕심이 없고 추구함도 없는 그들은 심지어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자유를 추구하고 흥가분함을 즐기며, 일찍이 이미 혼자 밥 먹고, 여행하고, 잠자는 것에 익숙해져, 고독이 떨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어떤 각도에서 '탕핑'은 외로움을 의미한다.

고독한 사람들은 고독한 사회를 이루고 고독 경제를 낳는다.

01. '고독 경제'의 부상

2020 년 민정부(民政部)는 일련의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2019 년 중국의 독신 인구는 2.6 억 명에 이르렀고, 이 중 8000 만 명이 독거 상태이며, 2021 년에는 9200 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도우반(豆瓣)에는 '혼자 사는 생활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미 약 1.5 만 편의 콘텐츠가 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독거 생활을 공유한다. 자율, 운동, 미식, 독서 ... '혼자 살기' 화제는 조회수가 6000 만 회를 넘었다.

'고독 경제'와 관련된 일련의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로움'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의 운영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중 요식업이 가장 현저한데 치차차(企查查)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중국에서 '1 인분 음식'과 관련된 요식업체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 년 전국 범위에서 '1 인 식사' 관련 기업 신규 등록건은 112 개 사이며 전년대비 43.6% 증가했다.



표 1) 출처: 치차차(企查查). 2016~2020 년 1 인식 관련 기업 등록량(단위: 개) 수치설명: 검색어 '1 인식'으로만, 산업은 '요식업'기업에서만 통계냈다. 통계시간 2021/1/22

점점 더 많은 식당이 '1 인' 손님을 전문으로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들여온 이란라미엔(一蘭拉面) 식당은 주문 방법에서 식사 공간 설정까지 모두 다른 손님이나 심지어 점원과의 직접 대면이 필요하지 않아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안전감을 제공한다. 광저우 시상티엔허(广州时尚天河)에서 오픈한 첫번째 솔로식당 '이씨우(一喜屋)'는 1 인 칸막이 자리가 있을 뿐 아니라 매 칸에는 태블릿 화면에 비디오 방영 기능도 갖추어 혼자서도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사진 2) 출처: 씨트립여행사이트(携程旅行) 이란라미엔 평가란(一兰拉面(铜锣湾店)点评)

‘고독 경제’는 수많은 신형 식당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통적인 요식업 회사가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1 인식’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씨아푸씨아푸(呷哺呷哺), 하이디라오(海底捞)는 혼자서 먹기 적합한 1 인분 세트 메뉴를 출시해 한사람도 휘귀(火锅)를 땃땃이 먹을 수 있게 했다. 20 여 년 역사를 지닌 중국내 유명 한식 불고기 브랜드 권금성(权金城)도 ‘1 인식’ 사업을 겨냥해 ‘1 인 불고기’ 매장을 내놓았다.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인테리어 스타일, 식사 장면을 채택해 젊은층 시장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외에 시장도 배달에서 ‘1 인식’ 소비자들의 고품질과 다양성에 관한 수요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메이투안 배달(美团外卖) 연합 중국식당협회, 아이루이그룹(艾瑞集团)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0 배달산업 보고서>에는 젊은층이 정식으로 주력그룹이 되며, 90 년대 이후와 00 후 출생자의 총 주문수량이 전체의 70%이상을 점유했고, 이중 1 인 식사 비율이 65.4%와 73.7%로 젊을수록 혼자 먹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드러냈다.

이에 ‘1 인분 음식’도 음식 배달 산업 브랜드의 표식이 되면서 다양화, 품질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어러머(饿了么)를 예로 들면 App 에 들어가 ‘1 인식’을 검색하면 큰 선생 작은 그릇 요리, 1 인 1 그릇 1 마리 닭 등 1 인식 음식점뿐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 음식점도 1 인식을 출시했다: 메이저우동포(眉州东坡), 뤼차식당(绿茶餐厅), 씨배이요우미엔촌(西贝莜面村), 슈상이청(村上一屋), 윈하이하오(云海肴) 등 식당도 1 인 세트 메뉴 전문구역이 있고, 대부분이 주식을 간판요리로 하며 다양한 반찬, 간식, 과일을 배합하여 1 인식 배달음식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가격은 주로 30~50 위안 사이이다.

不同年龄用户用餐人数分布



표 2) 출처: <2020 배달산업 보고서> 각 연령층 사용자의 식사 사람 수 분포. 황색-1인, 군청색-2인, 연청색-3인 이상

'1인 시장'이 점차 일종의 비즈니스 코드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에릭 클리넨버그(Eric Clinenberg)가 <독신 사회(Single Society)>라는 책에서 예언했듯이, 독신 사회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불가피한 사회 변화가 되고 있다.

독신 그룹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고독 경제'가 새롭고 중요한 경제 성장 포인트가 되어 시장에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왔다.

02. 혼자서도 행복하고자 함

젊은이들은 혼자라도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삶의 질을 더 높이 추구하고, '자신을 위해 산다'는 의식이 비교적 강하다.

이러한 독신 그룹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산업이 독신 그룹의 수요에 부합하는 독립 브랜드나 하위 브랜드, 개성화된 제품까지 부단히 출시하고 있으며, 모두 고독경제의 '거대한 케이크'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실제로 요식업뿐만 아니라 미니 가전, 미니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등 개별 분야에서도 이런 '한 사람의 행복'과 그에 따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가전 분야에서 '1인용' 미니 가전이 시장의 새로운 총애를 받고 있다. 많은 중국내 가전업체들이 소형 밥솥, 미니 냉장고, 벽걸이 미니 세탁기, 소형 오븐 등 '1인용' 미니 가전을 출시하고 있다.

일반 가전 제품과 비교하여 미니 가전 제품은 '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기능은 기존 가전 제품과 비슷하며 절전, 청소, 배치가 편리하며 외관도 예뻐 싱글 근로자의 마음을 손쉽게 사로잡았다.

작년 쌍십일절 당일, 수닝이고(苏宁易购) 데이터에 따르면 '1인용 생활가전제품' 판매가 전년 대비 149%, 1인 밥솥 판매가 전년 대비 312% 증가했다.

엔터테인먼트 방면에서는 미니 KTV 시장이 폭발적인 호황을 맞이했다. 미니 KTV는 보통 쇼핑몰, 영화관 등의 장소에 설치된다. 형태가 전화 부스와 비슷하고 차양 커튼과 방음 도어를 설치하여 은밀하게 난처할 필요없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전감을 제공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의 혼자 노래하고 싶은 수요를 충족시킨다.

창빠(唱吧)가 투자한 마이송(麦颂)을 예로 들면, 마이송(麦颂)은 3년 만에 400여 곳으로 확장했고, 쇼핑몰과 공항의 오프라인 미니 KTV는 누적 2만대 이상을 기록했다.

씽탕(星糖) miniKTV는 설립 1년만에 엔젤시리즈, A, A+, B 시리즈 네 번의 파이낸싱을 완료했으며, B 시리즈 파이낸싱 미공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파이낸싱 금액은 1500만 달러이며 다음해 다섯번째 파이낸싱을 완성한다고 한다.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오프라인 미니 KTV 시장은 약 20만대, 시장 규모는 약 31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출처: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2018~2022년 중국 오프라인 미니 KTV 투입규모와 예측. 청색-투입량, 분홍색-시장규모

동시에, 스마트 채팅을 사용하는 스마트 스피커가 흥기하기 시작했고 구글 홈,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 바이두 샤오두(小度), 알리 Tmall 징링(精灵), 샤오미 샤오아이통슈에(小爱同学) 징동과 iFLYTEK가 연합 출시한 딩동(叮咚) 스피커, 히말라야 샤오야(小雅) 등이 그것이다.

지능형 음성 시스템이 장착된 이 채팅 스피커는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피드백을 받는 독신자의 요구를 형식상 만족시킨다.

RUNTO(洛图科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스마트 스피커 시장은 폭발적인 발전을 경험했으며 전국 출하량은 4589만 대로 전년 대비 109.7% 증가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애완동물과 성인용 섹스 토이 산업이며, 둘 다 급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이든 성인용품이든 모두 독신자 그룹이 고독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각종 징후는 고독이 가져온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외로움을 고수'하는 그룹을 더 크게 만들고 새로운 소비 활력이 계속 파생되고, 그들의 수요가 점차 다양한 산업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03. 제품이 감성 마케팅보다 더 중요

점점 더 많은 브랜드가 고독을 비즈니스로 만들고 있으며, 고독 표식을 단 제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만연하고 있다.

2016 년 창업한 라미엔슈어(拉面说)는 '혼자서도 잘 먹어야 한다'는 감성적인 간판으로, 올해 1 분기 판매량이 이미 1 억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불과 5 년 만에 시장의 거인들을 제치고 신예 브랜드가 됐다.

장샤오바이(江小白) 또한 고독 마케팅의 전문가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야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카피라이팅은 대도시에서 안간힘을 써 일하는 젊은이들의 생활 상태를 드러내고 많은 독신 젊은이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림 1) 출처: 장샤오바이(江小白) 공식계정

중국 시장 최초의 독신그룹 소셜 간식브랜드인 'Single Food(单身粮)'는 '싱글, 고독 탈피'를 주제로 감자 칩, 패스트푸드, 음료 등의 제품을 출시하고 싱글족 슈퍼 IP 를 창출해 연수입 2 억을 달성했다.

CVSource 투자 데이터에 따르면 2018 년 9 월부터 2020 년 9 월까지 2 년 동안 'Single Food(单身粮)'는 4 차례에 걸쳐 자금 조달을 받았고 참여한 기관에는 카이룽투자(楷荣投资), 주어시캐피탈(琢石资本), 통창웨이예(同创伟业), 천하이캐피탈(辰海资本), 바이상식품(白象食品)이 있다.

'1 인 소비'를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가 생활과 오락의 모든 면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따라오는 것은 제품에 관한 의구심이다.

비록 라미엔슈어(拉面说)는 인터넷에서 한 번 갑자기 인기가 올랐지만 네티즌들의 라미엔슈어(拉面说)에 관한 평가는 양극화된 태세를 보인다. 블랙캣투서(黑猫投诉)에 올라온 라미엔슈어(拉面说)에 대한 품질 관련 문제 신고는 '면 신선도가 변했다, 먹는데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 수백 건에 가깝다.

2020 년 하반기 라미엔슈어(拉面说)는 제 3 자 OEM 에서 자체 생산으로 전환해, 자체 가공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생산이 품질 관리 개선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다.

장샤오바이(江小白)는 '외로움'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샤오바이(江小白)가 그저 마케팅만 능한 빠이주 기생오래비라고 평했다. 술맛이 나쁜 것이 장샤오바이(江小白)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도 장샤오바이(江小白) 판매량이 하강한 원인일 수 있다. 2018 년 100% 성장률과 비교하여 장샤오바이(江小白)의 2019 년 매출은 50%만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다.

동시에 장샤오바이(江小白)의 2020 년 파이낸싱 가치 평가는 이상적이지 않으며 자본 시장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의 장샤오바이(江小白)는 이미 아주 오래전 대중의 시야에서 떨어진 듯하다.

'Single Food(单身粮)'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감자칩에 이어 'Single Food(单身粮)'는 물뿌리는 면, 접시면 등의 인스턴트 면과 건두부, 파배기 등의 간식, 곡물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를 개발했고 많은 공동 브랜드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Single Food(单身粮)' 식품으로 기억되는 것은 '싱글 도그' 감자칩뿐이다. Foodaily 의 매일 식품 보고서에 따르면 'Single Food(单身粮)' 감자칩은 지난 2 년 동안 'Single Food(单身粮)' 브랜드 판매량의 50%를 차지했다.

독신 소비자는 영원히 감정속에 살 수 없으며 실제 음식으로 살 수 있다. 그들은 세련되고 정교한 것을 숭상하고, 개인화된 소비관을 갖지만 무엇을 소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이며, 소비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

감성 마케팅의 배후에는 제품의 실력이 지원해줘야 한다. 자신만의 품질 특색을 만들지 못하면 술수에서 시작해서 술수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고 인기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04. 고독 경제는 이미 도래했다

독신자를 얻으면 시장을 얻는 고독 경제는 이미 도래했다.

브랜드입장에서 고독 경제의 부상을 보는 것뿐 아니라 개성화된 소비 제품 및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독신'소비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고독 경제 기회아래, 이 트랙에서 어떻게 눈에 댈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재 브랜드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2. 이것이 사업이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쉬의 몰락은 불가피한 것이었을까?

— 36kr 제공

외국계 기업의 전성기는 지났고 이 시대 젊은이들의 영어 실력은 그리 나쁘지 않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의 파산 임박 뉴스는 다소 갑작스럽다. '이중 감축' 정책 시행 후 성인 교육은 적지 않은 교육 훈련 기관이 전환 방향으로 선택한 것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중 헤드급이 왜 침울하게 퇴장할까?

전염병 요인은 종종 처음 언급된다——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성인 실용 영어 시장 규모는 44% 축소되어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를 분쇄하는 마지막 빨대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상하며, 이 기업이 쇠퇴할 조짐은 이미 일찍이 출현했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는 21년 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전성기에는 직원이 3000명 이상, 매장이 39개에 달하고, 연매출 7000만 달러 이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도리어 줄곧 환불 곤란, 대출 손해, 위장 해고, 직원 급여 체납 소문이 돌았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의 몰락은 불가피한 것인가? 성인 영어 교육은 왜 시대에 의해 포기되는가? 미래에 성인 교육은 좋은 사업이 될까?



사진 1) 출처:騰訊網(腾讯网)

외국 기업 '몰락' 이후 20년 동안 월스트리트 잉글리시(华尔街英语)가 겨냥한 직장인그룹은 취업에서 사실 이미 천지개벽의 변화가 발생했다. '빅 온라인콘텐츠기업'이 만연한 시대에는 '인터넷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 창업 배당금과 중국 본토 대기업의 부상으로 지난 10년간 청년 취업의 1순위가 외국 기업에서 민영 대기업으로 옮겨간지 오래다. 이들 기업의 주요 사업은 대부분 국내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 기업처럼 영문 메일과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지 않는다. 996(편집자 주: 9시에 출근하여 밤 9시에 퇴근하고 일주일 6일 근무)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인터넷 기업은 평준화되었다. 우수한 신입 졸업생은 외국어 실력에 구애받지 않고도 연봉 30만~50만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K12 교육으로 신세대 젊은이들은 이미 직장내 공격적인 영어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문 실력은 일찍이 이미 보편적으로 강화되어 부모 선배 세대를 능가한다. 이것은 교육의 진화이자 수년간의 K12 교육 혜택의 결과다. 영어 트레이닝 시장은 일찍이 이미 앞자리에 배치되어, 일부 유능한 부모는 이미

유치원 기간부터 시작했다. 70~80 년대의 난감한 '바보 영어'에 비하면 값비싼 성인 실용 영어 교육은 젊은이들에게 그리 시급히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규모화하기 어려움.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는 운이 어긋났고, 성인 실용 영어 교육 산업도 많이 어렵다. CET-4, IELTS, TOEFL 과 같은 시험 위주의 영어 시장에 비해 실용영어는 소수의 핵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이 '충동 소비'다. 시험 위주의 영어가 대규모 수업으로 개설될 수 있는 방식인 것과 달리 실용 영어 과정은 종종 소규모 수업과 개별화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하며 많은 학생들이 사교적인 심리로 참여한다. 수업을 듣는다고 보다는 소비자를 즐겁게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싸고 어려운 비즈니스다.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영어의 부상으로 오프라인 실용 영어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했으며,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의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은 아주 뒤쳐져 있다.

한계에 도달. 오랫동안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와 이와 유사한 기관들은 수만 위안의 등록금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높은 단가로 인해 잠재 소비자는 종종 상점에서 몇 명의 판촉사원에 의해 몇 시간 동안 포위되어 있는 현상도 종종 발생한다. 어떤 '한 잠재 고객'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환불이 어려운 것도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리도록 유도한다. 선불 모델에서 일단 자금 출처가 충분하지 않고 회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쉽게 자본 사슬이 끊어질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전 지불 행위에 대해 이번 '이중 감축'에서는 감독측면에서도 여러 차례 리스크 방지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어 학습의 필요성은 여전히 더 약해지고 있으며, 8월 3일 상하이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학기말 영어 시험을 취소하고 중국어와 수학 2 과목만 남겼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은 여전히 월스트리트 잉글리쉬(华尔街英语)식 기관이 필요하지만 쇠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즈니스다.



사진 2) 출처: CCTV

3. 중국 탄소시장 운영 현황 — 경제일보(经济日报) 제공

전국 탄소 시장은 한 달 동안 운영되었고 그 활동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사진 1) 출처: 지에미엔신문(界面新闻)

오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전국탄소시장"이라 함)이 한달이 되었다. 상하이환경에너지교역소 자료에 따르면 8월 13일 기준 전국 탄소시장 탄소배출액(CEA) 누적 거래량은 651.88만 톤, 누적 거래액은 3.29억 위안이다. 8월 13일 CEA 증가는 54 위안/톤으로 첫날 증가보다 12.5%, 첫날 증가보다 5.41% 올랐다.

시장 참가자들은 전국 탄소 시장 운영이 한달이 되면서 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가운데 상승하고, 운영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다음 단계에서 국가 탄소 시장은 다양한 차원에서 시장 활동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거래 품목을 늘리고 다른 유형의 거래 주체를 통합하며 산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일평균 거래량 31.04만 톤

시장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기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전국 탄소시장 운영 한달간 21거래일 동안 CEA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1.04만 톤이었다. 거래방식 관점에서 보면 이 중 공시계약의 거래량은 533.9만 톤으로 81.9%를 차지했고, 공시계약 거래액은 2.77억 위안으로 84.15%를 차지했다. 21거래일 중 단지 3개 거래일만 거액 계약을 체결했다.

"전국 탄소시장 거래량의 80% 이상이 공시계약 거래이며, 60% 이상이 전국 탄소시장 개시 첫날 발생했으며, 일평균 거래량은 31.04만 톤, 첫날을 제외한 일평균 거래량은 약 12.07만 톤이다.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연구·혁신 부서의 양위(杨宇) 총경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격 변동 측면에서,

공시 계약 거래의 증가 측면에서 보면, CEA 가격은 개장 이후 등락하며 상승하는 추세였고, 일일 증가는 대략 전국 탄소 시장 개장 첫날 증가보다 낮지 않았다. 가격차이 관점에서 보면, 단지 대량매매거래가 있었던 3 거래일만 해당일의 대량매매거래 평균가격이 당일 공시계약의 일평균가격보다 낮았고, 가격차이 변동 범위는 2.72%에서 21.94%로 비교적 큰 변화를 보였다고 알려주었다.

최근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 라이샤오밍(赖晓明) 동사장은 전국 탄소 시장 거래량이 높지 않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현재까지 기업의 교역 계좌 개설율이 80%정도로 2162 개 발전기업 중 약 1600 개 사가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

기업 자금 계좌 개설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번 거래에 참여한 기업 대부분이 지방 테스트거래에 참여하지 않아, 탄소거래 관련 프로세스, 관리방법, 경영의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업이 시장 교역에 참여하려는 의식은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중국 전국 탄소시장의 탄소거래 시스템과 매커니즘은 여전히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며, <탄소배출권 교역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을 포함하여 자발적 배출 감축 거래 관련 제도가 시급하게 공포되어야 하며, 탄소 배출량의 회계·보고·검증 시스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며, 발전기업 외 기타 산업체에 대한 탄소회계 방법도 여전히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탄소 이력 데이터베이스 확립, 탄소 배출 데이터의 품질 향상, 중국 탄소 데이터에 대한 발언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중국 국가 탄소 시장에서 긴급히 해결할 문제에 대해 논하면서 양위(杨宇)는 또한 "지난 달 거래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시장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예를 들면 거래 품종을 늘리고 다른 유형의 거래 주체를 통합하고 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 탄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문제는 유동성 문제다." 중앙재경대학 녹색금융국제연구원 원장이며 중국금융학회 녹색금융전문위원회 부비서장인 왕야오(王遥)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탄소시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시장에 일정 기간의 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에는 거래 매커니즘이 성숙해지고, 거래 주체가 증가함에 따라, 배출 규제 기업외에 다른 투자 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 인증 자발적 배출 감소량(CCER)이 거래 품종이 되고 중국 국가 탄소 시장의 유동성이 점차 증가하여 탄소 배출량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생태환경부 뉴스홍보대사 류요우빈(刘友宾)은 이전에 생태환경부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공포를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속히 전국 탄소 시장 공동 감독 체제를 확립하고, 전국 탄소 시장의 모든 연결에 대한 통제를 강화 감독하고, 시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발전 산업 탄소 시장을 양호하게 운영함을 기반으로 산업 범위를 확장하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고배출 산업을 통합하고, 교역 종목, 교역 방식, 교역 주체를 점차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시장 활성도를 높인다.

시장 규모와 현물 제도 시스템

탄소 선물시스템 설계 제한

"국가 탄소 시장 시작 후 모두가 시장 가격 책정 및 자원 할당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탄소 배출 감소를 촉진할 수 있기를 모두 기대한다. 국가 탄소 시장의 시스템과 규칙이 부단히 개선됨에 따라 향후 국가 탄소 시장도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왕야오(王遥)는 말했다.

"국가 탄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건설 및 개선 작업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비교적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라이샤오밍(赖晓明)은 이렇게 밝히며 고품질 탄소 시장은 마땅히 다음 6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1. 명확하고 안정적인 정책, 건전하고 완전한 법규제도. 2.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운영시스템, 3.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4. 가격 변동이 안정적이며 시장의 대폭대락을 피해야 함, 5. 거래 주체의 다양화, 6. 거래 품목의 풍부함, 현물 외에 상응하는 파생 상품 시장을 도입해야 한다. 선물은 미래에 출시되어 다층적인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표 1) 출처: www.tanpaifang.com(碳排放交易). 2-18~2020 년 각 도시 지점 교역량(단위: 만 톤)

탄소 선물 품목과 관련하여 올해 6 월 중국 증권감독회 뉴스홍보대사 까오리(高莉)는 광저우 선물 교역소 설립 이후 탄소 선물의 연구 개발을 매우 중시하여, 탄소 현물 시장의 운영 및 시스템 구축 현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기업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현물 시장의 실제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탄소 배출권 선물 계약, 법규 연구 및 실증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다음 단계에서 중국 증권감독회는 광저우 선물 거래소가 광범위한 연구 및 실증 작업을 전개하고, 계약 규칙 설계를 개선하며, 조건이 갖춰졌을 때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선물 품목을 연구 출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최근 광저우 선물 거래소의 주리홍(朱丽红) 총경리는 현재 중국 전국 탄소 시장의 규모와 현물 시스템이 탄소 배출권 선물 시스템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더 많은 배출 규제 산업이 포함됨에 따라, 교역 가능한 탄소 배출권이 계속 증가하여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물 시스템의 지속적인 최적화 및 안정화는 탄소배출권 선물계약 시스템의 과학적 설계에 기여할 것이며,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탄소 배출권 선물의 적시 출시를 위해 좋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탄소시장 경험상 EU 탄소시장은 시장 첫 해에 탄소선물 거래를 시작했지만, 한국 탄소시장은 2015 년 거래를 시작한 이후 아직까지도 탄소선물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양위(杨宇)는 말했다. 비록

탄소 선물 증가 등 파생상품 거래는 가격 결정, 시장활성도 제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경험상 시장 매커니즘이 개선되고, 탄소 배출 감소 목표가 합리적이고, 현물 거래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제하에서 탄소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했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111) 중국 최고 양자과학자 판지엔웨이(潘建伟)가 정리한 중국의 신양자혁명 — 커지다오바오(科技导报) 제공

7 월 27 일 오전 제 23 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중국과학기술협회 부주석이자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기술대학 상무부교장인 판지엔웨이(潘建伟)가 '신양자혁명'이라는 주제로 주요보고를 하며 어떻게 양자의 기본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인지에 대해 탐구했다.



사진 1) 출처: 커지다오바오(科技导报). 제 23 차 중국과학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하는 판지엔웨이(潘建伟) 원사

양자 경쟁

2016 년 8 월 16 일 13 시 40 분 중국과학원 국가우주과학센터가 개발한 양자과학 실험위성 '모즈하오(墨子号)'가 중국 주추안위성(酒泉卫星) 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예정궤도에 진입했다.

'모즈하오(墨子号)'는 세계 최초의 양자 위성으로 중국이 세계 양자통신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양자 물리학의 기본 문제를 공간에서 시험하는 등 첨단 연구의 견고한 과학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6 월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이 2017 년에 보도한 하나의 성과는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일으켰다: '모즈(墨子)'라 명명한 양자위성은 발사지점에서 120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이 성과는 미국 정부에 경종을 울렸고 결국 2018 년 미국 <국가 양자 행동법(US

National Quantum Action Act) >의 통과로 이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문서로 미국에서 양자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



사진 2) 출처: 중국과학원 초소형위성 혁신 연구원. '모즈하오(墨子号)' 발사

'모즈하오(墨子号)'는 지난 20 년 동안의 활발한 중국 양자 정보 기술 발전을 보여준다.

중국과학원 제 20 차 학술대회, 중국공정원 제 15 회 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 10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양자정보기술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국가발전과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기초 핵심분야,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첨단제조, 생명보건, 뇌과학, 생물육종, 항공우주과학기술, 깊은 땅속과 심해 등 첨단분야 영역을 겨냥하고, 전략 및 예비성 기술 연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배치하고, 미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판지엔웨이(潘建伟)는 "양자 정보 기술은 중국의 전략적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과 미국 주요 선진국의 중요한 전략적 배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8 년 10 개년 '국가양자행동계획(National Quantum Action Plan)'을 발표했고, 2021 년 통과된 '무한첨단법(Endless Frontier Act)'은 인공지능과 양자정보 연구에 1000 억 달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5 년 국가 양자 기술 특별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유럽연합은 2018 년 양자기술 특별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독일은 6.5 억 유로에 <양자기술: 기초에서 시장까지> 프레임워크 계획을 실시했다. 프랑스는 2021 년 양자기술 국가행동계획 착수를 선포했다.

양자 역학은 정보 기술 발전을 촉진

인류 역사에서 산업혁명은 항상 과학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으며, 정보기술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은 주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트랜지스터가 컴퓨터의 기초인 것처럼 레이저 기술은 현대 인터넷의 중요한 지원이며, 항법 기술 발전은 원자시계와 같은 정밀 측정 기술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양자역학의 확립은 현대 정보기술의 발전을 직접 낳았습니다." 판지엔웨이(潘建伟)는 이렇게 밝히며 "100 년 이상의 발전을 거쳐 양자 역학은 이미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추었습니다."라고 했다.

현재 학계에서 양자분야 연구는 수동적 관찰에서 양자상태의 능동적 조작으로 전환되어 제 2의 양자혁명에 처해 있다.

판지엔웨이(潘建伟)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전학 발달과 유사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주로 통계학을 사용하여 유전 법칙, 기타 거시적 법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유전 공학 등 기술이 출현하며 이제는 유전자 서열의 기초위에 관련된 예측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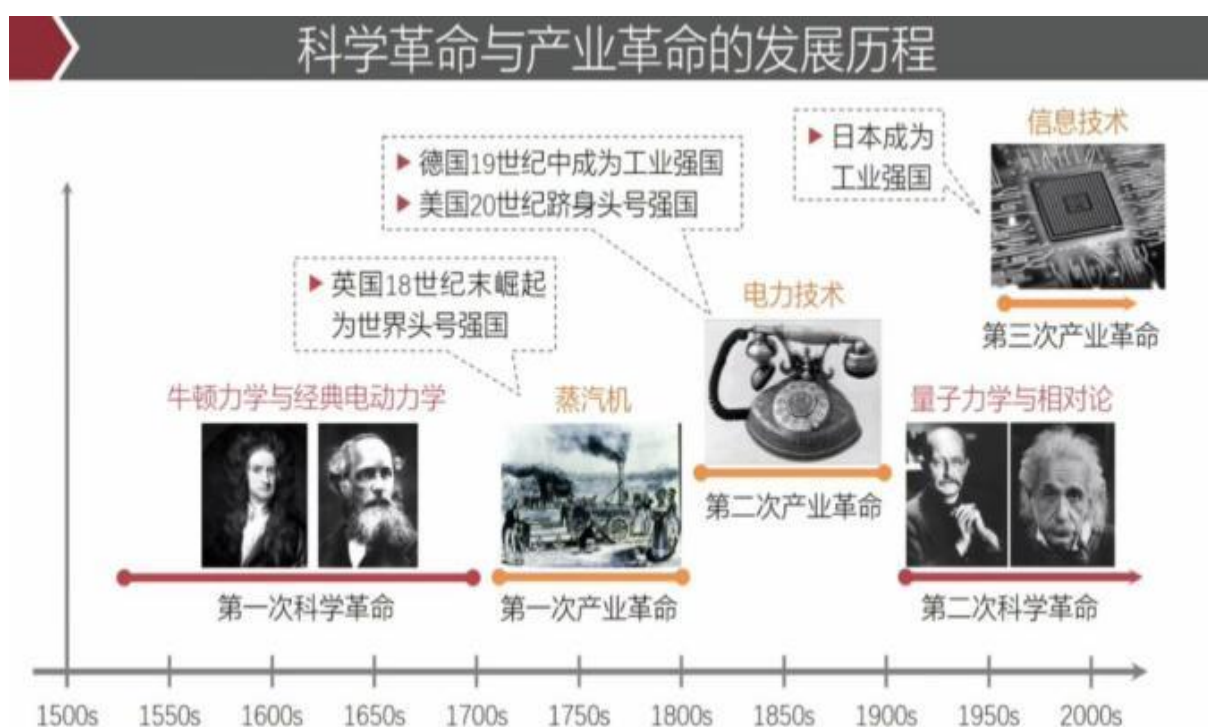


사진 3) 출처: 판지엔웨이(潘建伟) 원사 현장 보고서. 과학 혁명과 산업 혁명의 발전 과정. 1·2·3 차 산업혁명에 출현한 주요 과학기술 발전 정리

현재 정보 보안과 컴퓨팅 능력 부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정보 기술 분야에서 양자 정보 기술은 정보 기술을 어떻게 진일보 발전시킬 것인가?

판지엔웨이(潘建伟) 소개에 따르면 양자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정보 과학은 주로 두 가지 주요 응용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는 양자 통신을 사용하여 원리상 무조건 안전한 정보 전송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컴퓨팅을 사용하여 초고속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법칙을 제시한다.

'양자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운반체이다. 기본 특성은 분할할 수 없다' 이 특성을 기반으로한 양자 키 분배는 통신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양자컴퓨팅의 컴퓨팅 성능은 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판지엔웨이(潘建伟)는 "양자컴퓨팅의 병렬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여 큰 수를 분해하고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조 플롭스 기존 컴퓨터가 300 자리 대수 분해에 15 만년이 걸리는데 반해 1 조 플롭스 양자 컴퓨터는 1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양자컴퓨팅은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고전 암호 해독, 기상 예보, 금융 분석, 약물 설계, 물리 양자 화학 제시, 양자 재료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첨단 양자정보기술을 선도

광역양자통신의 발전경로에는 국제적으로 3 가지 종류의 발전로드맵이 있다. 광섬유를 통한 광역양자통신망 구현, 중계기를 통한 도시간 양자통신망 구현, 위성전송을 통한 장거리 양자통신 구현이다.

중국은 도시영역 광섬유 양자 통신망 실용화 측면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2007 년에는 광섬유 양자통신의 안전거리가 처음으로 100km 를 넘었고, 2008 년에는 최초로 도시 전역 양자통신망을 구축했고, 2012 년에는 46 개 노드 규모의 양자통신망을 구축하고 '양자통신에 기초한 높은 통신 안전 보장 시스템'의 영구적 운영을 가동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간 양자 통신망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총 광섬유 길이가 2000km 가 넘는 베이징-상해 간선을 구축했으며, 2017 년 9 월에 공식적으로 개통되어 곧 상업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육지에서의 양자통신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증하였고, 중국 양자통신의 광섬유 도시망이 이미 성숙한 추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발 로드맵- 양자 위성을 사용하여 양자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전지구 범위내 각종 섬, 외항선, 해외 기관 등 광섬유로 접근이 어렵거나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커버할 수 있어 중국내 전지구 범위의 안전한 정보 전송을 보장한다. '모즈하오(墨子号)'의 출시는 이러한 공백을 메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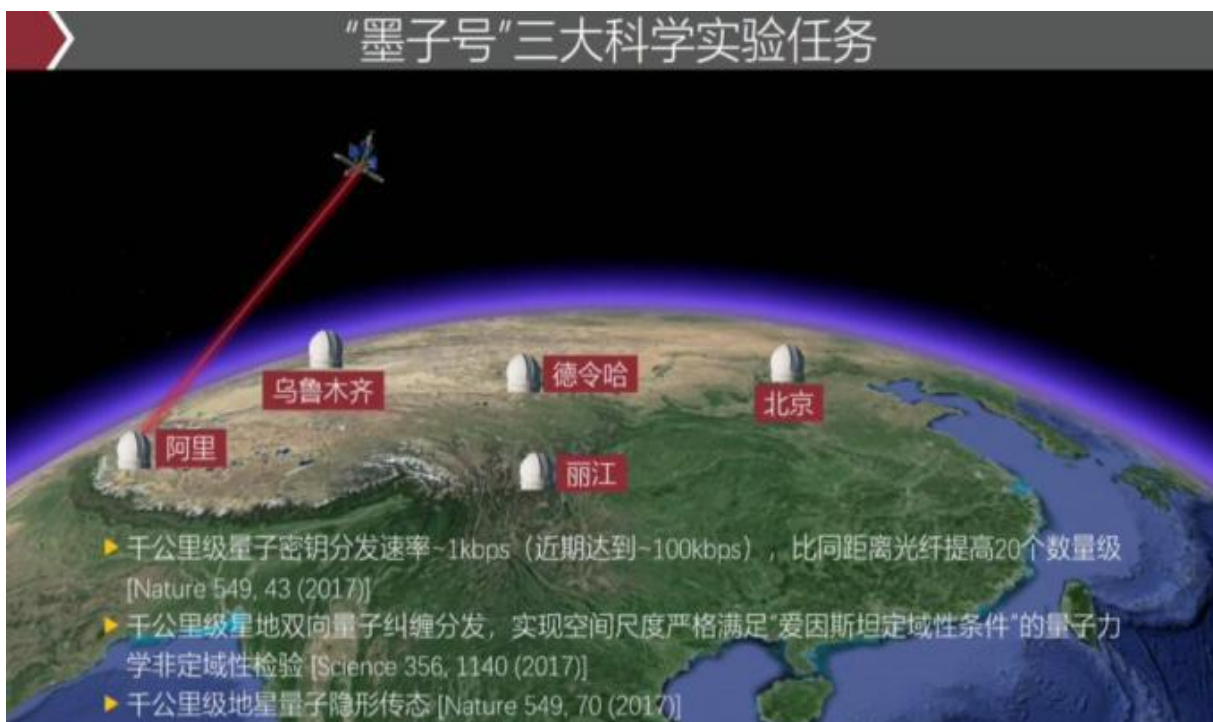


사진 4) 출처: 판지엔웨이(潘建伟) 현장 보고. '모즈하오(墨子号)' 3 대 과학 실험 임무

'모즈하오(墨子号)'는 이미 세 가지 주요 과학 실험 임무를 순조롭게 완성했다. 판지엔웨이(潘建伟)는 "우리는 베이징과 우루무치 사이의 원격 위치에서 양자 분포를 실현한 후, 양방향 양자 얽힘 분포와 장거리 양자 숨김형태 전송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즈하오(墨子号)'와 베이징-상하이 간선의 도킹을 완료했고, 대륙간 양자 기밀 통신을 실현했습니다. 이외에도 '모즈하오(墨子号)'는 양자역학과 중력의 융합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학계는 세 단계의 목표를 정의했다.

첫 번째 단계는 50~60 큐비트를 조작할 수 있어 몇 가지 특수한 컴퓨팅 문제에서 슈퍼컴퓨터보다 낫도록 만드는 것으로, 즉 어떤 단일 항목에서 기존 컴퓨터를 능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백 심지어 수천 큐비트를 조작할 수 있어 고전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물리적 시스템의 법칙을 밝힐 수 있는 특수 양자 컴퓨터와 양자 시뮬레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범용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판지엔웨이(潘建伟)는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 중국은 비교적 일찍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광학 양자컴퓨팅 측면에서 판지엔웨이(潘建伟)팀은 2017 년 다중 광자 'Bose 샘플링' 작업을 위한 광학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을 구축했다. 이것은 이전의 고전 컴퓨터를 능가하는 역사상 최초의 단일 광자 기반 양자 시뮬레이터이다.

2020 년 말, 중국은 76 개의 광자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의 '지우장(九章)'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가우스 보스 샘플링' 작업의 신속 솔루션을 실용적으로 실현했다. 양자컴퓨팅 시스템은 현재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0 조 배 빠르게 가우시안 보스 샘플링을 처리할 수 있다. 즉, '지우장(九章)'은 1 분 만에 임무를 완성과 슈퍼컴퓨터는 1 억 년이 필요하다. 그 속도는 구글이 출시한 53 비트 초전도 비트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플라너스(Plalanus)'보다 100 억배 더 빠르다.



사진 5) 출처: 중국과학기술대학. '지우장(九章)' 광자 양자 간섭 실물도

"최근 우리는 '지우장(九章)'을 76 개에서 113 개 광자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는 작년 결과에 비해 10 자릿수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라고 판지엔웨이(潘建伟)가 덧붙였다.

또한 중국은 초전도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2019 년 초, 중국과학원 양자 정보&양자 과학기술 혁신 연구소는 1 차원 사슬 구조의 초전도 양자 칩에 12 큐비트 얽힌 '클러스터 상태' 제작을 실현했고, 충실도 70%에 달하며, 이전 10 개의 초전도 큐비트 얽힘 기록을 타파했다.

올해 5 월 62 비트 프로그래밍 가능한 초전도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 '주충즈하오(祖冲之号)'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고 컴퓨팅능력이 구글 양자컴퓨팅 프로토타입보다 세 자릿수급으로 더 빠르며, 이 기초위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2 차원 양자 행보를 구현했다. 현재 '주충즈하오(祖冲之号)'는 66 비트로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이는 Google 보다 5 자릿수 더 빠른 속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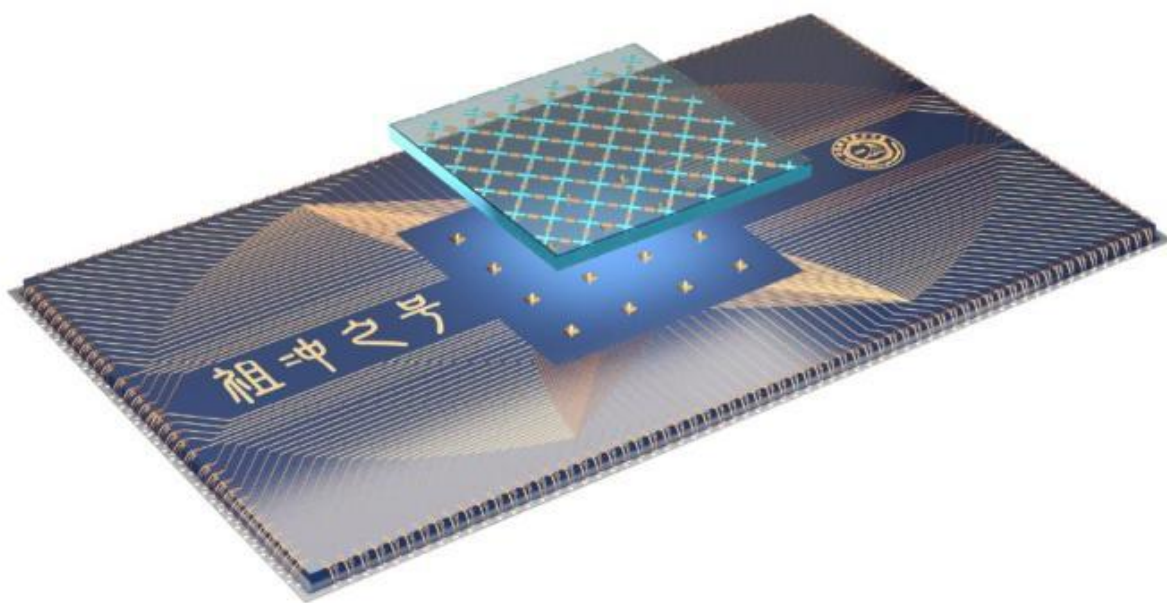


사진 6) 출처: arXiv. '주충즈하오(祖冲之号)'

판지엔웨이(潘建伟)는 "현재 중국은 광학 양자컴퓨팅과 초전도 양자컴퓨팅 두 개 시스템에서 모두 양자컴퓨팅 우월성을 달성한 미국 이외의 유일한 국가입니다."라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진

"양자 정보는 양자 얽힘 연구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정보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장거리 양자 분포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기초 물리학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판지엔웨이(潘建伟)는 말했다. "우리는 양자컴퓨팅의 두 번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판지엔웨이(潘建伟)는 10 년에서 15 년 간의 노력을 통해 미래에 전세계 통합 광역양자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양자컴퓨팅 측면에서 그는 5 년 안에 수백에서 수천 큐비트 조작을 실현하여, 양자 시뮬레이션방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고, 양자 오류 수정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범용 양자컴퓨터 연구 기초를 위해 10 년 정도의 시간내에 수백만 큐비트의 조작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판지엔웨이(潘建伟)는 말했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중국의 규제에 즉각 반응한 비트코인, 미국의 과세안엔 움직이지 않는 이유 (글로벌이코노믹, 2021.08.23)

정부는 암호화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접근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최대 경제의 비우호적인 정부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을 것이다. 일례로 중국이 5월에 암호화폐 단속을 반복한 후 며칠 만에 비트코인은 한때 30%나 폭락했다. 이는 중국이 말할 때 시장이 경청한다는 또 다른 알림이었다.

이번 달에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세금 조항이 열렬한 수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했다.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이 조항이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행위자가 미국 세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많은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역시 꽤 약세 신호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법안이 발의된 후 며칠 동안 비트코인은 거의 7%까지 치솟았다. 사실, 워싱턴 정치권의 드라마 직후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2조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로는 볼 수 없는 높이였다. 이번 주에 이 조항은 내용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 하원으로 이전된다.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에 시장이 반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비트코인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다르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소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그럴듯한 이론이 있다. 중국의 행동은 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행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블록체인을 지지하고 암호화폐를 경계했으며 베이징이 업계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에는 적어도 암호화폐 채굴을 중단하기 위해 나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중국 채굴자들은 이 정책에 항의해도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미 해외로 이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로비 활동은 다음 주에 법안이 논의될 하원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수정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 산업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이 서면으로 제정되더라도 재무부가 '중개인'이라는 용어의 광범위한 정의를 호의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 회사인 앰버 그룹(Amber Group)의 CEO인 마이클 우(Michael Wu)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한 소탕'이며, 많은 사람은 미국의 경우 '대화과 토론의 관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코인게코(CoinGecko)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바비 웅(Bobby Ong)도 "핵심은 아직 최종 법률이 아니기에 시장에서 아직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제정신이 결국 승리하고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러한 감정을 반영했다.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은 실제로 암호화폐에 도움이 된다. 암호화폐 과세 드라마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가 마침내 주류의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1조 달러짜리 지폐를 보관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의원들에게 최소한 그것의 존재와 관련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 탈중앙화되고 종종 분열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실제 정치 세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 옹호자들은 이번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코인데스크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마이클 케이시(Michael Casey)는 “도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한때 주변에 거주하던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합법화되어 결국 업계에 건설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니면 이것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일 뿐이고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중국이나 미국의 정치와 거의 관련이 없다. 중국의 탄압은 뜨거운 시장에 뒤이어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가격 지수(XBX)는 5 월 17 일 말까지 4 만 2,000 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인 6 만 4,000 달러를 넘은 지 얼마되지 않았던 시기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디파이 얼라이언스(Defi Alliance)의 파트너인 차오 왕(Qiao Wang)은 “뉴스 자체보다 시장 참여자와 더 관련이 있다. 두 나라의 소식은 똑같이 나뉘었지만 중국 소식이 나왔을 때 매우 거품이 일었다. 하지만 미국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약한 보유자들만 매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Okcoin)의 최고 운영 책임자(COO)인 제이슨 라우(Jason Lau)는 “시장 타이밍도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뉴스는 시장이 이미 과도하게 확장되고 하락하고 더 부정적인 뉴스를 찾고 있을 때 나온 것이다. 반면에 미국 인프라 법안의 경우 비트코인이 회복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소식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렇기에 산업이 뭉쳐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일 수 있다. 기본 아이디어는 시장이 이 재앙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궁극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상당 부분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 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이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여전히 있다.

물론 미국이 특히 기관 투자와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주요 세력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암호화폐는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아시아는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지역별로 암호화폐 사용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1 년 암호화폐 채택 지수는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케냐,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에 이어 미국을 8 위로 꼽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미국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2017 년 중국이 초기 코인 제고를 금지하고 본토 거래소를 폐쇄했을 때 세계 시장이 잠시 전율한 이유다. 불과 1 년 전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거래는 중국 위안화였다.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2017 년 이후에도 활성 상태를 유지했지만, 거래소 폐쇄로 인해 거래자 수를 추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특히 채굴의 경우 중국은 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인 해시레이트(hashrate)에서 불균형적인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글래스노드(Glassnode)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중국이 채굴을 단속한 5 월보다 7 월에 50%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채굴자들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 굴착 장치를 설치하면서 해시레이트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제이슨 라우는 “중국 채굴 뉴스는 실제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스트되지 않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엔 충격이었다. 이로 인해 해시레이트와 네트워크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진정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미국 정책 논의와 비교하면 미국에 특정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모호하고 네트워크 자체의 상태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 채굴자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단일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날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정부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산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탄생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2. 알리바바, 저작권 거래 위한 NFT 마켓 출시 (The Block Post, 2021.08.18)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플레이스를 공개했다.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의 NFT 마켓플레이스 출시로 중국 정부가 NFT 에는 일반 가상자산처럼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17 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아티스트, 게임 개발자 등 저작권자가 본인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해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저작권 및 자산 거래(Blockchain Digital Copyright and Asset-Trade)'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알리바바의 경매 플랫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 플랫폼에 공개되는 NFT 는 쓰촨 블록체인 협회 저작권 위원회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 '신 저작권 블록체인(New Copyright Blockchain)'에서 발행된다. 미디어는 "알리바바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미 운영 중"이라며 "오는 9 월 첫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NFT 입찰자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500 위안(약 9 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81)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방법

중국 상하이교통대학은 90 여명 교수와 30 여명의 행정 직원과 같이 지냈다. 유일한 외국인 교수로 완전 문화가 다른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선 그들보다 부지런하고 항상 먼저 인사를 하였다. 상대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원자는 먼저 다가서서 인사를 하였다. 경비원, 학교직원 선생님을 보아도 식사는 했냐고 물어보았다. 학장님 방도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간단하게 인사하였다.

나의 이런 태도를 불편하게 보는 중국인 교수가 있었다. 장교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나에게 태클을 걸었다. 정도가 지나친 정도를 넘었다. 한 번 나를 불러 앞으로 자기를 데리고 한국 연구, 연수, 여행을 꼭 넣으라고 하였다. 텃세 중에 텃세였다. 나는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 인성과 실력이 없는 소인배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 후 봐도 못 본 척하였다. 그는 그런 일 이후, 그는 나를 교묘하게 괴롭혔다.

나의 디자인 노하우를 빼내기 위해 자기 학생을 나의 연구학생으로 위장하여 나에게 논문 지도를 받게 하였다. 만 1 년 정도 철두철미 가르쳐 논문이 완성되니, 그 학생의 논문에 자기(장 교수) 이름과 학생 이름을 넣고 발표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그 황당함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학생은 몸 둘 바를 몰라 하면서 장교수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할 말을 없었다. 눈뜨고 코 빼어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나는 중국은 대국이지만, 대인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 그들이 내 말의 속뜻을 모를 리는 없다. 철면피 같은 중국인 교수는 이 말을 애써 외면한다.

그러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교수, 연구자, 기업인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한다. 나의 학과의 원로 류국위(刘国余) 교수는 인자하고 점잖았다. 그는 중국 디자인 1 세대로 묵묵히 디자인을 전파하기 위해 그의 평생을 중국에 바친 분이다. 그와 나는 자주 만나 디자인 이야길 하였다. 그는 나의 이야길 귀기울여 경청하고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다. 나보다 한참 위였지만, 배우려고 하였다. 나를 인정하여 주었다. 당시 학장이었던 장국량(张国良) 학장님도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학과 발전 방향과 전략, 중국인 교수의 디자인 견해를 나에게 자주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어떻게 실행할지 같이 고민도 하였다.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은 국적, 직위고하, 남녀노소를 떠나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때가 되면 문자를 보낸다. 이건 서로 소통하는 길이고 상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마음이 우선이다. 나의 수업과 연구소에는 젊은 학생과 연구원 대다수이지만, **나는 그들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보여주면 그들은 나와 하나가 된다. 하나된 마음 없이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 겸손과 존경으로 하나되어 일을 추진한다.** 나의 모토이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중국이 경제발전의 '독일화'로 지향하는 제조대국의 모습이란

(다이아몬드온라인, 2021.8.18)



사진 1) 출처: gettyimages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7 월 30 일 열린 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한 뒤 하반기 경제 관련 활동 방침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지원이 강조된다. 중국은 향후 경제방침을 독일에서 배우려 하고 있다. (프리라이터 요시다 요스케吉田陽介)

중국 공산당의 앞으로의 경제 방침이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국내, 국제의 2 대국, 감염증의 예방·억제와 사회경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거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의 지속적 회복, 안정 속에서의 호전을 꾀한다'며, 필요한 때에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경제활동에 관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정부의 '보이는 손'으로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통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도 중소기업과 곤란업종의 지속적 회복을 돕겠다 라고 밝히고 있다. 단, 현재 중국정부는 대규모 선심 정책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 이후 중국경제의 발전은 민간섹터가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개인 소비,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빠른 중소기업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변수다.

'전정특신專精特新'이라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발전'이란 문구가 등장했다. '전정특신'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말이지만, '전문화·정밀화·특징화·참신화'라고 하는 4 개의 뛰어난 특징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코로나사태로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향한 대처도 가속화하고 있다. 예컨대 공업 정보 화부는 "초등 거인 기업(전정특신 중소 기업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기업)리스트"게재의 1584 곳을 발표하고 향후 이들 기업을 육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 재정부와 공업 정보 화부는 올해 2 월에 통달을 내고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중앙 재정은 100 억위안 이상 장려금, 보조금을 계상하고 1000 여개 국가 차원의 생조 특신"초등 거인 기업"을 3 진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 만여 개 중소 기업이 국가적 전정특신 "초등 거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언명했다(참조). 중국 정부 지도자도 공적인 자리에서 "전정특신"중소 기업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유학·국무원 부총리는 7 월 27 일 전국 "전정특신"중소 기업 회의 포럼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소 기업이 좋아지면 중국 경제도 좋은될 수 있다.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 다양성 있고 차별화된 경제환경은 우리 경제 강인성의 가장 중요한 보장이다. '전정 특신'의 영혼은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다. 현재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은 발전의 문제이며, 나아가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가 '전정특신'을 강조하는 것은 이노베이션을 장려하고, 전문화·정밀화·특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에게는, '전정특신'을 방향으로서 본업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연마해,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강화해, 기업을 독창적인 특기를 몸에 익히고 있는 '단식 챔피언'이나 '풀 세트의 전문가'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중국은 '히든 챔피언 기업'이 많은 독일의 '과학기술강국'제조강국'의 길을 참고로 하고 있다 고 하는 기사가 인터넷상에 발표되었다. 숨겨진 챔피언 기업이란, 독일의 경영학자 하먼사이먼이 최초로 제창한 말로, 한 분야에서 지명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뛰어난 실적과 쉼터를 자랑하며, 타기업에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간단히 모방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가르킨다. 이번의 중소기업의 전정특신을 향한 전략은 숨겨진 챔피언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독일이 세계 과학기술 강국이 된 이유 중국이 분석

중국의 경제매체 지국추세智谷趨勢가 8 월 1 일 발표한 기사에서는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논문이 소개되고 독일이 세계의 과학기술 강국에 이른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4 가지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은 (1) 3 년간의 직업 교육을 포함 12 년간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중등 기술 교육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 (2) 교육과 연구를 조화한 고등 교육 체제를 중시하는 것, (3) 듀얼 시스템(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 시스템)를 도입하고 기업과 직업계 학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실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품질 입국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대처를 진행한 것. 즉, 대기업을 근거로 하는 공업 실험실, 기술 기준을 중시하고 "장인 정신"을 장려하고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것이다. 세번째 방법은 상품, 자본, 노동 유동을 가속하고, 지역과 업계의 독점을 타파하고 시장의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국가 독점 자본 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막강한 경쟁력을 결집하는 주요보장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선견성 있고 실무적 발전전략과 그 방향을 정한 것이다.

중국과 독일의 유사점이란

아울러 앞서 언급한 기사들은 중국의 개혁조치와 독일 발전의 길 세 가지 유사점도 소개하였다. 첫째, 첫째로 최근 교육 분야의 일련의 큰 움직임이다.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 것은 교육의 공평성과 장기적인 인구전략에 이바지한다. 캐리어 교육이 보다 중시되고 중졸자의 40~50%가 전문학교 진학을 바라는 것은 '제조 강국'을 향한 인재를 가져온다. 둘째는, 기업의 과학 연구를 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공업화 캐치업기 중국은 기술자 육성에 더욱 주력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사온 기술이라도 좋다고 생각해 기초연구를 소홀히 했다. 정치국 회의는 '기초 연구의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는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골머리를 안고 있는'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를 보다 많이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독점 금지를 강화해 '거대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보다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의 정책 문서에는, 직업 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고, 독일의 교육정책의 이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서 있는 경쟁 환경 만들겠다" 중국의 독점 금지 정책

독일의 정책과 중국 개혁조치의 유사점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은 지금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독점 금지"정책이다. 지난해 12 월과 올해 4 월 2 차례 정치국 회의에서는 "독점 금지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 방지""플랫폼의 경제 감독 관리의 강화·개선"이 나왔지만 7 월 30 일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가 일단락됐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중점 분야의 위험을 예방·해소하는.....기업의 국외 상장 감독 관리 제도를 안전화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으나 중국 배차 서비스 최대 뚝뚝 미국 상장 사건으로 야기된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업 정보 화부는 7 월 30 일 대형 인터넷 기업 12 개를 모아 좌담회를 열고 독점금지법의 준수, 데이터의 안전 확보, 인터넷 대기업의 책임, 해외에서의 상장의 감독 관리등에 대해 전달했다(참조). 7 월 30 일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독점 금지의 강화나 플랫폼의 감독 관리의 개선등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A주는 23 일, 26 일, 27 일, 3 일 연속 급락하여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독점 금지에 대해서 기업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류췌(劉鶴)·국무원 부총리는 7 월 27 일, "전정특신" 중소기업 서밋 포럼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객관적 추세를 파악하고 있다. 어떠한 자본도 지금의 최대의 정치적 올바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의 메시지다. 중공당은 2013 년에 '통일적·개방적이고 질서있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독점 금지 움직임은 '질서 있는 경쟁'이 행해지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중국의 경제 모델은, 수년 전까지 '대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다. 중국 정부는 '타국의 모델을 완전하게는 베끼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독일화'는 않겠지만, 질 높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독일의 수법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2.사상 최강의 '일꾼 내각'은 무엇이었나, 스가 총리가 거듭 실패를 거듭한 가장 큰 이유 (President Online, 2021.8.17)

'국민을 위한 일하는 내각'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나 국내외의 경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주저없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지난해 10 월 26 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소신 표명에 있는 말이다. 스가수상은 디지털청의 창설이나 온실 효과 가스의 대폭 삭감, 안심 안전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등 구체적인 정책을 늘어놓고, 국민에 대해서 '일꾼'으로서의 자신을 강하게 어필했다. 각료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일하는 내각'을 슬로건으로 삼고 '하나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훈시했다. 주변의 의견과 생각을 잘 듣고 판단해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다. 과연 나라의 키잡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인가.

오미 시게루 회장은 "구할 수 있는 생명 못 구할 것" 경고

그런데, 정부의 신형 코로나 대책 분과회가 8 월 12 일, 도쿄 등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고 있는 6 도부현에 대해 2 주간 한정으로 감염 억제책의 강화를 요구하도록 제언했다.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해, 도쿄에서의 인파를 긴급사태 선언 발령 전의 5 할까지 줄이는 등 시민에게 외출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자치체제의 총력을 든 것과

동시에 의료현장이 압박해지면서 신종 코로나 치료 이외의 진료마저 할 수 없게 되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요청이다. 이날 폭발적인 감염확대로 전국의 하루 신규 감염자수는 사상 최대인 1 만 8888 명을 경신했다.

백신 미접종 젊은 사람이나 중년 감염이 많다. 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특히 도내에는 병원의 침대가 메워져, 입원할 수 없는 자택 요양자가 급증중이다. 폭발적 감염 확대의 원인은 감염력이 강한 델타주의 유행에 있다. 감염의 급확대가 일어나는 것은, 구미의 감염 확대 상황으로부터 판단해 꽤 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진 1) 출처: 지지통신 포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왼쪽) 2021 년 8 월 13 일 오후 총리 관저

"사상 최강의 관방장관"으로 여당 내 평판은 높았다

감염 급확대의 징후를 무시하듯 간 총리는 도쿄올림픽 개최(7 월 23 일 8 월 8 일)를 단행했다. 게다가 폐회 이틀 전에는 도쿄 변화가의 인파는 올림픽 개막 전과 비교해 늘지 않았다. 올림픽이 감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까지 강조했다. 오미 회장이 국회에서 "올림픽 개최가 사람들의 의식에 준 영향은 있지 않은가"라고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스가총리에게는 주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문도 없이 돌진한다. 업신여김이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시절 2 인자라는 입장에서는 '사상 최강의 관방장관'으로 여당 내 평판이 높았다. 그러나 총리에 취임한 뒤 평판은 좋지 않다.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8 월 13 일 신규 감염자(1 일당)가 2 만명을 돌파하자 간 총리는 "귀성이나 여행을 최대한 피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민에게 협력을 당부했지만 도쿄 올림픽 개최와 상반되는 만큼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지는 않다.

"나를 거스르면 자리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작년 12 월의 수상 관저에서 일어난 일이다. 스가 총리가 재무성 주계국장을 불러 특정 예산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그 국장이 "무리입니다"라고 반대하자, 화가난 스가총리는 "말도 안돼"라고 호통을 치며 자료를 바닥에 내던졌다. 결국 예산은 스가총리의 뜻대로 증액됐다. 스가총리는 관방장관 때에도 가스미가세키 관료들을 욕박지르고, 때로는 '나를 거역할 것 같으면 자리를 옮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백신 부족의 대응을 둘러싸고 고노 다로 행정·규제 개혁 장관과 충돌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 대책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톱도 고생하고 있다. 팬데믹을 일으킨 신형 감염증은 컨트롤이 어렵다. 스가 총리는 여름휴가도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지만 TV에서 그런 표정을 보고 있으면 눈에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8 월 6 일의 히로시마 원폭 평화식전에서는 인사문의 건너뛰기도 했다. 스가수상은 금년 12 월에 73 세가 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6 세나 나이가 많다. 고령을 편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국정을 관장하기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 국민을 제일로 생각한다면 총리 연임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후진에게 길을 터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스가 총리에게 생명과 삶 맡겨도 괜찮겠나" 아사히사설

8 월 11 일자 아사히신문 사설은 '코로나 아래 총리 스가씨에게 맡겨도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첫머리에 "스가 정권은 주류 제공 대책에 이어 입원 방침 전환을 놓고도 미주迷走를 거듭했다.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의 도쿄 올림픽 강행으로, 행동 억제 호소도 국민에게 닿지 않는다'라고 써, 이렇게 지적한다. '이대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맡겨도 괜찮은 것인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스가 총리의 자질이 엄격하게 추궁당하는 국면이다' 스가수상에 대해서 퇴진하고 수상을 사퇴하도록, 인도를 건네주고 있는 것으로, 제목과 함께 꽤 따끔한 지적이다. 아사히 사설은 한층 더 지적한다. '정권의 대응은 자주, '뒷북' 즉흥적'라고 비판받았다.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스가 총리를 혐오하는 아사히사설다운 필치이지만 확실히 주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그의 행태를 보면 그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아사히사설 '벌거벗은 왕'이라고까지 혹평

아사히사설은 우선 총리의 근거 없는 낙관이라며 총리는 감염자가 일정 수에 그치는 낙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최악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스가 총리에게는 그 시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상의 자세다. 복수의 각료나 주변이 올림픽의 중단을 진언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비판해, '수상이 '벌거벗은 임금'이 되어 독선적으로 행동한다면, 전문가를 포함한 중지를 모은 대책은 태어날 수 없다'라고 호소한다. 아사히사설은 벌거벗은 왕이라고까지 혹평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치게 된다. 아사히사설은 이렇게 주장한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에게 외출이나 외식을 자제하라는 것이 모순된 메시지가 된다는 자각도 없이 자신의 시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해도 듣는 이를 납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스가 총리는 왜 이 큰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가.

"정부가 낙관적 전망만 고집해 대책 세워 왔다" 마이니찌 사설

8 월 14 일자 마이니치신문 사설은 "코로나 위기관리 '근거 없는 낙관' 배제해야 한다"(제목)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에 큰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담이 국민에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스가총리를 물고 늘어진다. 큰 1 개 사설이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당초부터 낙관적인 전망을 고집해, 대책을 게을리해 온 것'이라고 추궁한다. 역시 스가총리의 문제는 '근거 없는 낙관'일 것이다. 마이니치 사설은 그 폐해를 이렇게 지적한다. '감염 수습 후로 예정하고 있던 여행 수요 환기책 'Go To 트래블'을 앞당기기 시작했다. 사람의 이동은 감염 리스크를 높이는 데도 불구하고, 여행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 모순적인 방침으로, 긴급사태 선언하의 도쿄 올림픽의

개최와 같다. '올여름의 제 5 파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증자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다고 얕잡아 보았다'라고도 지적해, '실제로는, 접종이 진행되지 않은 세대에 감염이 급확대해, 40~50 대에게서, 위기관리의 기본인 최악의 사태 상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설한다. 스가총리는 위기관리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마이니치 사설은 "정부가 낙관적인 견해를 고치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대로다.

"전문가들의 식견을 경시하는 자세도 변하지 않았다"

마이니치 사설은 말한다. 국민에게 자숙 피로와 코로나 적응이 확산돼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주의 유행에 따른 제 5 파의 도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인심을 고양시키고, 사람의 이동을 부르고, 감염에 대한 주의를 무디게 했다. "매일 사설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도 표면화했다' '정부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팬데믹하에서의 개최는 '보통은 없다'라고 말해 무관객으로 하도록 제언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마지막까지 관객을 넣는 것을 고집했다' 스가수상의 요망대로 무관객이 아니고, 많은 관중을 넣은 개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숙은 불필요]라는 방송 효과가 크게 나와 감염이 더욱 확산된 것은 아닐까. 마이니치 사설은 지적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응을 잘못해 온 정부 자신이다. 위기관리에는 국민의 신뢰가 불가결하지만, 수상은 사람들의 불안에 제대로 대면해 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독선적인 버릇을 고쳐 이 가을까지 총리의 재임기간을 전력투구로 다하여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후진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3.일본 코로나 패전으로 이제는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전락한 것인가?

(현대비즈니스, 2021.8.17)

양적완화의 끝이 시작됐다



사진 1) 출처: iStock. 일본이 혼자 지고 있다

지난 8 월 5 일 열린 잉글랜드 은행(BOE) 금융정책위원회(MPC)는 (1)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고 (2) 회사채 매입 잔액을 200 억파운드로 유지하며 (3) 국채 매입 잔액을 8750 억파운드로 동결했다. (1)과 (2)는 만장일치, (3)은 찬성 8 표, 반대 1 표의 다수결이었다. 현재 주목되는 양적 완화(QE)의 철수는 2018 년 6 월 이후 기준 금리 1.5%가 자산 구입 잔액 감소에 착수하는 한계라고 제시되어 왔지만 이번부터 0.5%로 인하되고 있으며 반대 표를 던졌던 것은 마이클 켄더스 위원으로 국채 구입 잔액을 ▲ 450 억파운드 감액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올 가을부터 국채 매입이 마무리되는 것을 의도한 제안이다. 앞으로 예정되는 MPC 멤버의 인사에 비추어서도 종전의 기정 노선인 "연말까지는 자산 구입을 계속"라는 방침은 유지될 것 같지만 BOE 의 정책 운영의 초점은 이제 "QE 종료 시점"에 넘어갔으며 "QE 마무리 여부"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 FRB 의 자산 매입이 단계적 철수를 보는 것에 대한, BOE 가 한꺼번에 구입 중단 사태까지 보는 것이라면, BOE 는 FRB 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후술하듯이, 금년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경향에 있다.

델타주로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



사진 1) 출처: getty images. 코로나 대책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

영국 하면 델타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한복판에도 불구하고 7 월 행동 제한을 전면 해제를 감행하고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미 보고한 대로, 신규 감염자는 피크 아웃하고 있다. 얼마 전에 수만명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축구 유럽 선수권과 윌블던 테니스 등)이 개최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상황이다. 물론 선진국에서 선두 집단을 달리는 백신 접종률과 학교가 여름 휴가에 들어간 것, 감염자 수 증가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 억제 등, 피크 아웃의 요인은 종종 지적되고 있지만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영국 정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억제하는 것은 감염자 수는 없는 사망자·중상자 수"라는 이야기 아래 경제 정상화로 했음이 도박으로 야유되면서도 결국은 성공한 것은 특필된다. 필자는 영국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도박'이라고 형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상을 보는 한 영국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도박에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련의 행동은 세계경제의 복조에 모범을 나타낸 것은

아닐까. 물론 앞으로 우려되는 새로운 변이주 상황에 따라 금융정책이 다시 살아날 우려도 있지만 그 말을 시작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일본을 회피하는 움직임 선명히

이번 BOE 이 공표된 "금융 정책 보고"에서는 "델타바이러스의 만연(the spread of the Delta variant)"라는 말이 하향요인으로 되풀이 등장했으며 실제로 7~9 월 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전회 전망(5 월)부터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결론은 "the impact of Covid on the UK economy fades further over time"라고 기술하고 기본 시나리오는 흔들리지 않았다. 역년에서 본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봐도 2021~2023 년에 대해서 +7.25% / +6.00% / +1.50%이며, 전회와 비교하면 2021 년은 제자리 걸음, 2022~23 년 다소 상향 조정과 안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델타바이러스의 존재를 염두에 긴급 사태 선언의 연장이나 락다운의 합법화를 논의했다하기 바쁘지만, 영국에서는 백신을 무기로 코로나와 잘 공존하는 길이 선택되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결실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로서 성장률에 이만큼의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은 직시해야 하며, 적어도 주식·환율시장에서는 일본을 회피하는 흐름이 현저하다. 예를 들면 환율시장을 보자. 현재로서는 G7 에서 금융정책의 정상화가 끝난 것이다.

주식도 환율도 일본 혼자만 지고



표 1) 출처: 현대비즈니스. G7 의 명목 실효 환율. 달러, 유로, 엔, 캐나다, 영국

상술한 대로, 자산 구입을 단계적으로 철수할 FRB 에 BOE 는 매입 자체를 정지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정상화 프로세스의 진척은 "BOC>BOE>FRB"이라는 전망이다. 캐나다 달러와 파운드는 연초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의 관계이지만, 백신 접종률의 고저나 GDP 성장률의 완성되는 금융 정책의 정상화 과정의 진척은 여전히 명목 실효 환율(NEER)의 강약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에 있다(도표 1). 이러한 상황,"엔화가 최악체"라는 사실은 상응으로 뚜렷한 경향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유로도 신통치 않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 정책은 물론 반석의 실수요(무역 흑자)를 감안하면 엔화에 질 요소는 없다. 참고로 주식 시장도 비슷한 구도이다. 주요국의 주가 지수를 보면, 일본의 출발이 늦어 진 감은 잠깐 보더라도

명확하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가 리스크인 것은 전 세계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나 자산가격에 이 정도의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일본 고유의 매력이 없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중진국 취급을...

아직 하나 판단기준이 보이지 않는 행동규제의 기본방향은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의욕을 시들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백신접종이 늦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본 일본의 희생의 작음을 생각하면 어쩔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백신을 맞든 맞지 않든 일본은 신규 감염자의 수준에 구애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영국과 같은 접근방식을 밟을 기미는 없다. 적어도 금융시장은 그렇게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이길 수 있는 상대(통화)쌍이라면 선진국이 아니라 백신 접종률로 확실히 앞설 수 있는 신흥국 통화 정도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선진국 통화와 신흥국 통화 사이에 위치한 '중진국' 통화와 같은 입지가 될 것이다.

唐鎌 大輔 카라카마 다이ске(미즈호은행 치프마켓 이코노미스트)

4. '올림픽을 강행한 일본의 리더'와 '태평양 전쟁에 뛰어든 리더'는 이렇게 닮았다 (현대비즈니스, 202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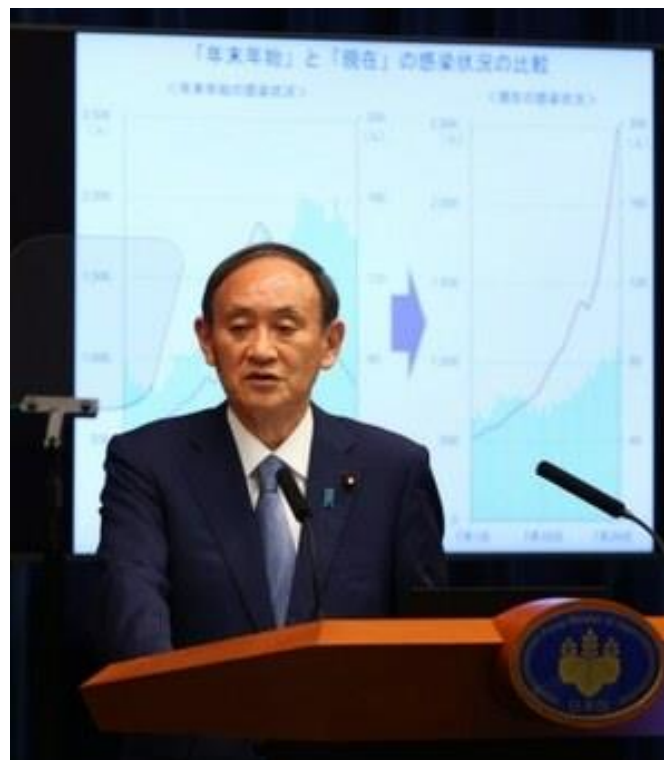


사진 1) 출처: Gettyimages

전후 최대의 국난으로 꼽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세계 최대의 이벤트인 도쿄 올림픽. 이들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현대의 일본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처했다. 즉, 한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려면, 도쿄 올림픽은 중지했어야 했다. 한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급속히 확대된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일본 지도자들은 많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리고 예측대로 현재 코로나 감염은 급속히 확산돼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도쿄 올림픽의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마 아무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나는 경영학의 관점에서 구 일본군의 행동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이러한 현대 일본 지도자들의 행동과 구 일본군 지도자들의 행동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의 신규 지도자들이 공유하는 무책임의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본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역사

전후, 구일본군의 리더들의 행동을 명확하게 분석한 연구자 중 한 명은 마루야마 마사오이다. 그는 대전중의 일독의 리더들을 비교하면서 일본 리더들의 특징을 예리하게 그려냈다.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하면 나치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는 개전에 대한 결단에 대해 명확한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 도쿄재판의 이치가야법정에 나란히 선 일본 지도자들의 경우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어딘지 모르게 무언가에 밀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질질 거국적으로 돌입해 갔다고 한다. 그 때문에, 구일본군의 리더들은, 완전히 무책임했다고 한다. 이 같은 것을, 야마모토시치헤이는 '공기'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려고 했다. 왜 일본 리더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향했을까. 공기의 지배를 받았고, 공기가 최종 결정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공기가 최종 결정자라면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본군 리더들과 무책임론이 연결된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도쿄 올림픽과 함께 일본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확산돼 바야흐로 의료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올림픽을 둘러싼 엄청난 비용 부담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누가 어떻게, 이러한 책임을 질 것인가. 스가 요시히데 수상인가.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인가. 아니면 하시모토 세이코대회 조직위원장이나. 마루카와 주요 올림픽 담당 장관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모두 태도가 애매해 이미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아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 전쟁처럼 국민이 희생되는가. 이런 일본 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무책임의 전통을 짚어본다.

부조리에 빠진 일본 지도자들



사진 1) 출처: Getty images. 도조 히데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정도, 경제합리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손익 계산원리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손익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가 플러스면 전진하고, 마이너스면 후퇴하는 단순한 행동 원리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구 일본군의 리더들과 현재의 일본 리더들의 행동을 분석해 보고 싶다. 구 일본군의 리더들은 대부분 수재였으며, 모두 손익 계산이 빨랐다. 게다가, 그들은 계산이 빠를 뿐만 아니라, 그 계산에 회계상에 나타나 보이는 코스트 만이 아니고, 회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코스트도 폭넓게 고려해, 계산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넓고 깊게 상황 분석하고 손익 계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최신 이론 중 하나인 거래 코스트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한정된 정보 속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한정 합리적'인 존재이며, 또 빈틈이 있으면 전체의 이익이 아닌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존재로서 가정된다. 그래서 사람끼리 협상 거래를 할 경우 서로 속지 않으려고 줄다리기가 일어난다. 이 인간 관계상의 낭비를 '거래 코스트'라고 한다. 그 코스트는 회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코스트라는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코스트'이기도 하다. 구 일본군의 리더들은 이러한 인간관계상의 거래 코스트의 존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비록 현 상태가 비효율적이더라도, 현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변화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세력이 출현하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엄청난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육군의 분석에서도 해군의 분석에서도 미국과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 일본군의 지도자들은 모두 미국과의 개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개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군은 중국의 만주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했다. 도조가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만주의 권익인 남만주철도, 뤄순, 다롄은 러일전쟁의 결과 수십만명의 영령이 피를 흘리며 얻은 권익이며 지금까지 국가 예산의 거의 사용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철수하면 모두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무시하고 만주에서 철수하면 국민의 비난은 크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 거래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비쌌을 것이다. 또한 군 내부에서도 2.26 사건과 같은 청년장교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장병들을 설득하는 거래비용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나아가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권익을 바탕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 획득 기회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기회 비용도 상당히 큰 것이었다. 이러한 비용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일본 리더들은 이길 수 없는 미국과의 개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부조리에 빠졌던 것이다. 즉, 당시의 리더들의 상당수는, 득실을 계산하면, 만주로부터의 완전 철퇴보다 이길 수 없는 미국과 개전하는 것이 플러스라고 하는 점에 일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부조리한 검은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비극으로 치닫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일본군 지도자들은 개전을 결심했던 것이다.

지도자에게 올림픽은 '합리적'이었다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의 리더들 역시 도쿄 올림픽 개최를 놓고 손익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림픽을 중단하면 확실히 국내 인류를 잡을 수 있고 코로나 감염 확대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해외 선수나 관계자의 입국도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입될 일도 없다. 그 점은 쉽게 상상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중단된다면 도쿄 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 이미 건설된 각종 신시설과 새 경기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모두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된다. 또한 올림픽 초빙을 위해 사용한 비용, 개폐회식 비용, 그리고 그 외 각종 준비 비용도 모두 매몰 비용이 든다. 게다가 그러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대회 중단을 결단하고자 할 경우 많은 저항세력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어 그 거래 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게다가 개최에 의해서 얻을 예정의 메리트도 얻지 못하고, 결국, 이익 획득을 위한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즉, 엄청난 기회비용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비용 크기를 감안할 때 올림픽을 중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설령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개최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부조리에 빠지게 된다. 이리하여 일본의 지도자들은 도쿄 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 득실을 계산하면, 취소가 아니라 개최하는 편이 플러스라고 하는 계산 결과에서 일치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일본 리더들 역시 부조리한 검은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 개최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조리에 빠진 일본 지도자들의 애매모호한 태도

이상과 같은 부조리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이 일본 지도자들의 무책임하고 애매한 태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에 의하면 뉘른베르크 재판 법정에서 독일의 지도자 1인 괴링은 오스트리아 병합을 둘러싸고 100% 자신의 책임이라고 명쾌하게 말했다고 한다. 물론 괴링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개전을 둘러싸고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도쿄재판에 있어서의 일본 지도자들의 태도는 애매모호하고 아무도 검찰관이나 재판장의 물음에 정면으로 대답하려 하지 않고 질문의 참뜻을 예측해 앞서가 애매한 대답을 반복했다.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전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전쟁을 치르기를 원치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전쟁책임을 부정했다. 확실히 일본의 리더들은 한편으로는 전쟁을 원했는가 하면 원했던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피하려 했는가 하면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막대한 거래비용을 헤아리며, 검은 분위기 속에서 전쟁을 회피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일본군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관해 뚜렷한 강한 의지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도덕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 즉 자신들의 행동을 천황과 관련된 특수한 용어로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군은 '황군'이었고, 일본의 무력에 의한 다민족에 대한 압력은 언제나 '황도'의 선포였으며, 그것은 '성전'이었다. 이렇게 일본군 지도자들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살육 행위의 구석구석까지 황도와 관련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체적 책임은 모호화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일본 리더들도 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 독일의 리더들과 같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아마 아무도 강한 의사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하긴 일본의 리더들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원했는가 하면 원했던 것이고, 연기 혹은 취소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비용과 이점을 헤아려, 결국, 검은 공기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확대를 억제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굳이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확대를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도쿄 올림픽은 무관객 개최가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금 부족이 예상되자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자금을 보전하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일본 지도자들은 모두 주춤한 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서로 미루기까지 했다. 국가인가, 도쿄도인가, 조직위원회인가. 그리고 구 일본군의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개최를 놓고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낸 징표라든가 안심과 안전의 대회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주체적 책임을 얼버무리려 한 것이다.

부조리의 회피와 책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손익계산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원리에 너무 의지하면 일본의 리더들처럼 인간은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부조리에 빠지게 된다.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 관계상의 거래 코스트나 매몰 코스트등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한편 베네핏은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일본군 지도자들처럼 합리적으로 비효율적인 길을 선택하거나, 현재의 일본 지도자들처럼 합리적으로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조리하고 무책임한 상태를 회피하려면 재판관이 먼저 피고의 행동을 놓고 사실을 확정하고, 그 다음 그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 것인지 그 다음 그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만약 옳지 않다고 가치 판단한다면 손익 계산의 결과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부조리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판단에 기초한 행동은 극히 주관적이므로 반대로 매우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며, 그리고 책임을 명확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의 리더들은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피하고, 보다 객관적인 득실 계산 원리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부조리에 빠져 책임이 희미해져 버린 것이다.

5. '경기침체로 인해, 도쿄는 더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착각하기 쉬운 '인바운드 수요'의 뜻밖의 '현실' (분순 온라인, 2021.8.17)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해, 해외로부터의 방일객은 격감했다. 그러나, 국내의 인구가 축소하는 가운데, 향후를 응시해 관광 입국으로서의 경제정책·인바운드 확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세계의 사람들이 본 일본의 매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는, 일본 경제신문사 기업 보도부 기자(당시) 나카토 레이씨에 의한 '싼 일본' '가격'이 나타내는 정체(停滞)(일본 경제신문 출판)의 일부를 발췌. 세계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일본 경제의 실태를 소개한다

인바운드 버블 이후



사진 1) 출처: iStock.com

해외에서 보면 두드러지는 '일본의 저렴'이 상기(商機)로 연결된 것이, '인바운드 소비'다. 일제 가전이나 화장품은 품질이 좋을 뿐 아니라 무조건 싸고 득템이라는 것. 2015년부터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할 때까지 5년 동안 1년에 두세 차례 중국에서 일본을 찾았던 이모씨는 말한다. '도쿄, 오사카, 오키나와, 홋카이도..... 어디를 가도 아름답고 맛있다. 베이징의 집은 전기밥솥과 드라이어 등 일제 가전제품들로 넘쳐난다는 것. 2012년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 엔화 약세와 비자 단기 체류요건 완화 등을 배경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의 수는 계속 늘었다. 2013~14년에는 '인바운드 소비'라는 말이 생겨나 15년의 방일 외국인 손님수는 전년대비 47%증가의 1973만명에 급증. 드디어 45년 만에 출국

일본인수를 넘어섰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3188만 명으로 인바운드가 일본에서 쓴 여행 소비액은 총 4조 8000억엔에 이른다.

'폭매爆買' 붐 뒤에 있었던 리스크

가장 먼저 혜택을 본 곳은 가전제품 양판점이나 백화점이다. 중국인들이 디지털카메라, 밥솥, 손목시계라는 일본 토산품 3종신기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은 폭구매로 불렸다. 그 다음의 새로운 스테디셀러는 화장품, 온수 세정 변기, 스테인리스 보틀. 중국권의 정월 "춘절"의 대형 연휴에는, 도쿄·긴자의 가전 양판점 앞에 중국의 투어버스가 타는 광경이 익숙해졌다. 폭구매가 일단락되면, 그들의 목적은 "물건"에서 체험형의 "체험"소비로 변용한다. 폭구매도, 2014년의 소비도, 인구감소등으로 국내의 개인소비가 침체하는 가운데, 정부도 관광 진흥을 성장 전략의 기둥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 폭매의 모습을, 미디어는 빠짐없이 '일본의 고품질이 인기'라고 다루었다.

이 인기는 저렴한 이유 말고는 없다

하지만 당시, 필자는 가전 양판점 업계를 담당하고 있어, 업계 대기업의 간부가 중얼거린 내용을 잊을 수 없다.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면세코너를 걸 눈질하면서 이 인기는 그저 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엔저 이상의 저렴함. 일본인이 똑같이 해외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그야말로 구매력의 변화였다. 인바운드의 과도한 의존은 국제정세에 좌우된다. 리스크이기도 하다'라고. 그 간부의 '위기감'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 2020년 초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인바운드가 끓고 있던 전국의 모든 광경이 일변한 것이다. 관광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3월의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는 전년 동기비 반감인 약 400만명. 소비액도 40% 감소한 7000억엔이었다. 하지만 4월 이후에는 거의 소실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바운드 여행 소비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수출'로 계산돼 2019년(4조 8000억엔)은 명목 GDP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즉 이대로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으면, 그 약 1%가 증발하게 된다. 하지만 영향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인바운드로 활성화되고 있던 지방이나 중소기업의 관련 기업의 경영 위기다. 이미 징후는 있다. 도쿄 상공 리서치에 의하면, 2020년의 전국의 기업도산(부채 총액 1000만엔 이상)은 7773건이었다. 그 중 2596건이 인바운드 수요의 소실이나 외출 자숙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요식업과 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이었다. 인바운드에의 과도한 의존은 리스크도 내포하는 것을 부각시킨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습 후에도 응시해 관광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재검토도 필요하게 된다. 물론 국내의 인구가 축소하는 가운데 관광 입국으로서의 경제정책, 인바운드 확대는 중요하다. 일본은 최근 급증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인바운드는 아직 적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프랑스는 2019년에 약 9000만 명이 방문하고 프랑스 관광업이 연간 약 21조엔을 창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후, 프랑스 정부는 관광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인바운드의 부유층을 위해 숙박세나 고액의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엔저 버블이나 "싸구려 판매"의 재래는 피해야 할 것이다.

영국인에게 '가장 싼 목적지'

방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던 것은 일본의 싸기 때문이라고 증명할 만한 기사를 발견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데일리 메일에서는 2020년 1월의 Where your holiday pounds will go miles further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천 여행지를 나열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몇 년에 걸친 경기침체로 도쿄는 매력적이 되었다. 일본의 수도에서는 가격이 13% 하락했다." 그리고 "영국 관광객에게 가장 싼 10개의 장소"로 베트남 불가리아 등 10개국의 관광지를 꼽았고, 1잔의 커피와 맥주, 샌드위치, 저녁 풀코스 등 8개 품목에 대해 비교. 합계의 비용으로 일본(도쿄)은 48.21파운드(약 7000엔)로

불가리아(써니비치, 30.60 파운드), 터키(마르마리스, 44.48.21 파운드)에 이어 3 번째로 싼 것이었다. 리스트(10 개국) 중 장거리 행선지로는 가장 싼 목적지이다. 인도네시아(발리 61.43 파운드)나 베트남(호이안 59.49 파운드)보다 싼 것에 놀랐지만 모두 서양객이 많은 관광지여서 관광객용으로 나름대로 높게 설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도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